

| 9월30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6838.04<br>(-32.77) | ↑ 코스닥       | 855.91<br>(+6.11)  |
| ↓ 금리 (미국 9년)       | 4.010<br>(-0.066)   | ↓ 환율 (원-달러) | 1352.10<br>(-4.60) |

# “지금이 바닥” 美 채권 쓸어 담는 서학개미

9월 13억 달러 등 3개월째 순매수  
美 30년물 금리 5.6%대로 치솟아  
전문가 “주식대비 채권매력 커져  
이런 투자환경 40년 동안 기다려”

올해 초 미국 채권을 팔아치웠던 국내 투자자들이 9월 들어 대거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며 채권 가격이 하락하자, 향후 금리인하 시 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한 달여간(1~29일)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을 13억825만달러 순매수했다. 7월 8억8879만달러, 8월 18억2127만달러에 이어 3개월째 순매수다.

석 달째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 미국 채권 보관 금액은 8월 말 149억 3852만달러에서 9월 28일 기준으로 156억 8598만달러로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상승한 미국 국채 금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CNBC에 따르면 9월 29일(현지시간)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3%까지 치솟으며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미 30년물 금리는 6일 연속 상승세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까지 겹친 영향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 시작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차 판매를 시작한 9월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광판에 국민성장펀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물량소진시까지 판매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펀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차 판매를 시작한 9월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광판에 국민성장펀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물량소진시까지 판매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펀드다.

/뉴시스

2.2bp 상승한 5.264%에 거래됐다.

일부 투자자는 현재 채권 금리 수준을 고점으로 보고, 향후 기대하는 시세 차익을 위해 채권 매수에 나서고 있다. 통상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보니, 물가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채권의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상태”라며 “현재 미국 채권 금

리를 고점으로 인식하면서 대거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가 고점에 압박해 매수 기회가 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채권 운용사 핼코의 대 아이바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높아진 채권금리 자체를 투자 기회로 봤다. 아이바신은 “자금은 6~7% 수익률의 우량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며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주식과 비교

해 채권의 매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블랙록에서 2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담당하는 릭 리더 글로벌 채권 CIO의 평가는 더 적극적이다. 리더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듀레이션이 약 3년이고 수익률이 7%를 넘는다며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40년 동안 기다렸다”고 말했다. 높은 채권 수익률을 얻기 위해 이전처럼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 작년 주택 준공 28% ↓… “공급부족, 이유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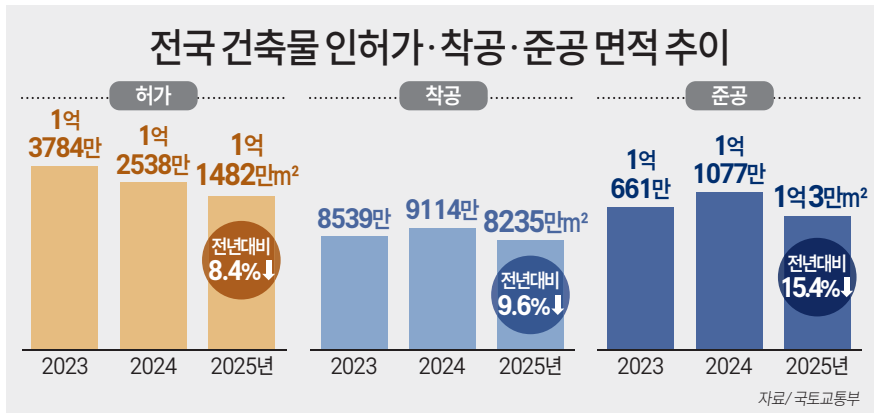
국토부, 2025 공급지표 일제 악화  
전국 건축물 허가면적 8.4% 하락  
주거용 착공·준공 감소폭 더 커  
주택 착공 등 올해 공급지표 회복세

지나해 부동산 공급 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의 허가면적, 착공, 준공이 모두 감소하며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의 경우 감소폭이 더 컸다. 수요는 여전히 전년대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이유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건축물 허가면적은 1억 1482만 1000㎡로 전년 대비 8.4% 줄었다. <관련기사 3면>

착공면적과 준공면적은 8235만 4000㎡, 1억 3600만 6000㎡로 전년 대비 각각 9.6%, 15.4%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에서 착공과 준공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나해 주거용 건축물 허가면적은



자료/국토교통부

4143만 6000㎡로 전년 대비 5.3% 줄었다. 착공면적은 2691만 7000㎡로 19.7%, 준공면적은 3541만 6000㎡로 18.1% 각각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허가면적은 전년보다 4.9% 감소했으며, 착공과 준공면적은 각각 21.0%, 17.3% 줄었다. 가구수 기준으로 당장 공급물량인 준공(입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가능할 수 있는 착공과 인허가도 크게 줄었다.

“20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 확정지”에 따르면 작년 전국 주택 준공은 30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41만 6000가구 대비 27.9%나 줄었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38만 8000가구로 전년 43만 5000가구 대비 10.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만 늘었을 뿐 서울과 지방은 각각 20% 안팎으로 급감했다. 착공은 27만 2000가구로 전년 30만 3000가구 대비 10.2% 감소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는 16만 3935호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 인허가는 5.4%, 서울은 40.4%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물량은 15만 63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었다. 수도권 1.5% 증가했고, 서울은 41.1% 늘었다.

준공은 최근 몇 년간 악화된 공급지표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전국이 15만 6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다.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21.6%, 19.1% 줄었다.

주택 거래는 규제가 강화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얼어붙고 있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 8359건으로 전월 대비 23.5% 감소했다.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25.9%, 27.3% 줄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한국발전’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5개사 분산 자본·인력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

통합준비위원회는 향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통합회사의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운영시스템 구축, 통합 절차, 해외사업 이관 등 핵심 주요 사항을 다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정부 측 인사와 발전 5사 부사장을 비롯해 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정보통신(IT)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절차와 노동자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수립했다. 이어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의 성공적 출범을 목표로 한 세부 일정 ‘통합추진 이행안(로드맵)’과 화학적·제도적 통합을 자문·지원할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원활한 통합을 위해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같은 날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발전공기업 주요 노동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노사 간 정례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공기업 통합은 발전 5사의 역량과 사업체계를 미래 에너지환경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더 큰 발전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선도하는 더 강한 에너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이 대통령, DMZ 지리사고 장병 위문…“충분한 예우 반드시 챙겨달라”  
▲국정원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당국간 비공개 합의”

/사진 뉴시스

▲특검, ‘게임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서울 집값 가장 상승 눈앞…규제 넘어 공급 시 협대

▲장윤기 사형 대신 무기징역…法 “사회와 영구 격리”  
▲한 총리 “2030년까지 민간 합동 로봇 20만대 보급”



# 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 명목-실질 71만원 격차

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7월 명목임금 전년대비 2.5%↑  
실질임금 최근 4개월 연속 감소  
상용·임시일용직 채용 큰 폭 증가

국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간 격차가 월 70만 원대로 벌어졌다. 올해 7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에 비해 2.5% 늘어난 데 반해 실질임금은 외려 0.3% 줄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산정하는 실질임금은 최근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69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1% (23만3000명) 증가했다.

종사상위별로 상용직이 0.5%, 임시일용직이 7.4% 늘었다. 이들이 지난 7월 명세서상 받은 임금의 평균치는 431만 6000원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반면 실질임금으로 환산 시 전년동월 (361만5000원) 대비 0.3% 줄어든 360만 4000원에 그쳤다. 명목-실질 간 괴리가 71만2000원에 달한다.

실질임금은 6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올해 4월 -1.0%에 이어 5월 -1.4%, 6월 -0.1% 7월 -0.3% 등이다. 앞선 1분기역시 연말정산 세액 환급이 반영된 2월(+15.5%)을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바 있다. 1월 -9.4%, 3월 +0.1%였다.

명목임금만 보면 7월 상용근로자는 3.4% 늘어난 463만3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2.6% 줄어든 173만6000원을 받았다.

8월 기준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7%), 금융·보험업(+3.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1%)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매·소매업(-1.4%),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2.0%), 정보통신업(-0.1%) 등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산업 가운데 종사자 수 비중 (18%)이 가장 큰 제조업에선 0.5% (+1만 7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중 종사자가 증가한 부문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8000명), 기타운송장비(+6000명),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5000명) 순이었다. 감소 부문은 고무·플라스틱제품(-4000명), 비금속광물제품(-2000명), 1차금속(-2000명) 등이었다.

비제조업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만8000명, 보건업이 4만4000명, 보험업이 1만9000명 늘었다. 반면 소매업(-3만 8000명), 종합건설업(-1만8000명), 스포츠·오락관련서비스업(-9천명) 등에선 줄었다.

8월 전체 채용인원은 94만8000명이었다. 이 중 상용직은 3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5% 증가, 임시일용직은 62만2000명으로 21.6%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AI시대, 중견기업 중심 성장사다리 필요”

중견련, 81건 입법 개선과제 전달  
근로시간제 등 규제 해소 요청도

AI 혁명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있는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의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할 혁신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30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AI의 가치는 단기적 수익 창출을 넘어 근본적인 산업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영속적인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데 놓인다”며 “시설 투자, 전문인력 확보 등 원활한 AX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성장할수록 규제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을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AI 혁명과 산업 전반의 성장사다리 강화를 연결하는 장기적 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AI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비롯해 IC T, 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AI 도입·활용 법적 지원 근거 수립, 제조 중견·중소기업의 AX 축진을



위한 추가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R&D 등 5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성장을 촉진할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개선 ▲경제형별 합리화와 상법 상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노동조합법 쟁점사항 규제화 및 사용자 대항권 설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등 노동 분야를 포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중복지 개선 ▲주주의 결권 제한 폐지 ▲적합업종 관련 제도 합리화 등을 대표적이다.

중견련 김현철 상근부회장(사진)은 “22대 후반기 국회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수렴해 투자 혁신 촉진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리사 수, 한국 찾는다… AI 반도체 등 협력 모색

(AMD CEO)

반도체업계, 수 회장 참석 간담회 검토  
삼성 등 주요기업 총수 회동 ‘이목집중’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사진)가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비롯한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수 회장이 참석하는 업계 간담회가 오는 10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라벨리온과 답엑스, 모빌리트 등 국내 주요 NPU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수 회장은 방한 기간 배정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한에서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와 AMD가 체결한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논의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양측은 AMD의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NPU를 연계한 이기종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하기로 했다. AMD와 국내 NPU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활용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AI 연구 거점 구축과 인재 양성도 협력 대상이다. AMD의 AI 컴퓨팅 자원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와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과의 추가 협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 회장은 지난 3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S부문장(부회장)을 각각 만나 반도체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AMD는 삼성전자와 차세대 AI 메모리·컴퓨팅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국내 기업들과 협력 범위를 넓혔다. 네이바와도 AI 인프라 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AMD의 AI 가속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AI 인프라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수 회장은 이번 방한에서도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의 회동 성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남이 이뤄질 경우 지난 3월 논의를 바탕으로 AI 반도체와 메모리 등 양사 간 협력 방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AMD가 국내 NPU 기업부터 메모리 업체까지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와의 접점을 한층 넓힐지 주목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전영현 부회장 “삼성전자, 에이전트 AI 통해 새롭게 변화”

### 삼성 AI 포럼

AI 연구성과 실제 사업 활용 논의  
연구개발·공장운영 등 적용 확대

삼성전자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인공지능(AI)을 반도체 연구개발과 공장 운영에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 업무의 자동화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국내의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3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삼성 AI 포럼 2026’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인 포럼에는 국내 AI 대학원 교수·연구원 100명과 삼성전자 임직원 300명 등 400명이 참석했다. ‘에이전트 시프트: 지능에서 임팩트로’를 주제로 AI 연구 성과를 실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뤘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영상 환영사에서 “에이전트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 오후 ‘AI 전환(AX) 혁신’ 세션에서 연구개발에 AI를 안전하게 활용하



30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26’ 행사 현장.

/삼성전자

고 업무 자동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룬다. 공식 프로그램에 따르면 엔트로피의 최상급 테크리드는 클라우드 기반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를, 삼성전자 AX/PI센터의 한재준 마스터는 반도체 사업의 AI 전환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AI 적용 범위는 생산 현장으로도 확대된다. 회사는 앞서 지난 3월 모바일 사업에서 축적한 AI 기술을 공장 운영에 활용하는 제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자체 입고부터 출하까지 실제 공정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생산 과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AI 에이전트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설비 관리와 자재 운반, 조립을 맡는 로봇에도 AI를 접목한다. 작업 중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업무 활용과 함께 AI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도 소개됐다. 란제이 크리슈나(Ranjay Krishna) 워싱턴대 교수는 스케치를 활용한 시각 추론으로 소형 모델의 로보틱스 AI 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형 삼성리서치 상무는 AI에 이진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아키텍처를 다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 한화에어로, ‘재사용 기술 시연체’ 총조립 착수

우주 발사체 재사용 기술확보 속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우주수송 시장 공략을 위해 발사체 재사용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 스페이스X가 로켓 재사용으로 발사 비용을 낮춘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차세대발사체의 재사용 기반을 마련해 비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발사체 재사용 기술 확보를 위한 ‘재사용 기술 시연체’ 총조립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전체 연구를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을 담당한다. 비즈

로넥스텍과 한양이엔지 등 국내 우주기업들도 참여한다. 2028년까지 기술 실증을 마치고 미국 스페이스X의 주력 발사체인 ‘팰컨9’처럼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시연체는 높이 12.2m, 직경 1.5m로 제작되며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단연소 사이클 터보펌프 엔진 1기가 탑재된다. 2028년 비행시험에서는 수직 이륙해 고도 500m까지 상승한 뒤 착륙 지점에 안정적으로 수직 착륙하는 과정을 약 90초 안에 수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과정에서 엔진 추력 조절과 자세 제어, 유도제어 등 발사체 재사용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발사체 재사용은 우주 수송 비용을 낮추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세계 최초로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에 성공한 스페이스X는 팰컨9의 1단 로켓을 수십 차례 재사용하며 kg당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발사체 하단부인 1단만 재사용해도 기존 대비 발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차세대발사체의 1단 재사용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 국채·금 약세 속 글로벌 자금 현금행… AI·반도체 돈맥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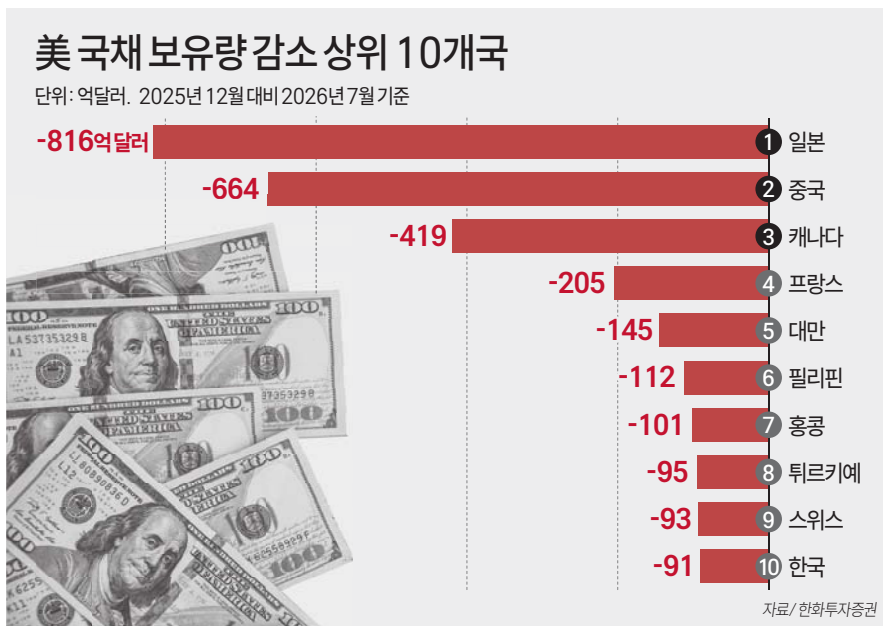
美 재정적자·추가 건축 우려 겹쳐  
주요국 국채금리 동반 상승세  
위험자산 줄이고 현금 비중 확대  
기업 차환·투자비용 부담 가중  
AI·반도체 자금조달 경쟁 심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 현금 보유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자산 매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진 데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미 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까지 겹치며 자칫 이런 변화가 대출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금융 관련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정된 투자자금이 특정 산업과 기업으로 향하는 쏠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 ◆주요국 국채 금리 '동시 발작'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미 장기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 속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S&P 500지수는 0.17%, 나스닥 종합지수는 0.09% 내렸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48% 내린 배럴당 89.38달러에, 브렌트유 선물은 2.56% 내린 102.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각각 8월 31일 이후, 9월 22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유럽연합의 예산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스톡스600지수는 0.09% 떨어졌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45%,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53% 하락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안전한



파난처로 인기를 끌던 국채 가격도 떨어졌다. 이날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5.265%에 거래되며 이날 들어 8번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국채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진 데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꼽힌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8~6.3%에 머물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만 해도 3.1~4.6% 수준이었는데 가파르게 늘어났다. 문제는 재정적자와 함께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다. 지난해부터 2036년까지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

340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1조 1700억달러(87.3%)가 순이자지출 증가분이다. 재정적자를 메우고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다는 게 채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들의 회사채 발행도 문제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도 치솟았다. 30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3.068%를 기록했고 지난 29일 연 3.1%까지 터졌다. 엔화 약세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금리,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뛰고 있다.

금 현물 가격은 30일 온스당 4180달러 대까지 하락했다. 세계금협회는 환율 정

책에 대한 우려와 미국 국채시장에 대한 불안, 금값 상승에 따른 투자 수요 등을 유입 배경으로 꼽았다. 국제 은 현물 가격도 61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주요국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01.403으로 전장보다 0.182% 상승했다. 장중에는 7월 28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경제 강세 속 통화정책은 긴축적일 것이라는 경계감이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유로화는 장중 달러당 1.1312달러까지 밀리며 2025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당 157.30엔으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 ◆AI·반도체 기업들 부담 커질 수도 … 특정 산업에 자금 편중 우려도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각국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싼값에 돈을 빌렸던 기업들이 엄청난 불황으로 인한 수익 급감에 대출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돈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빌릴 수 있었던 시절에는 기업이 빚을 늘려도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훨씬 높은 금리로 다시 빌려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쌓아 올린 막대한 빚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각 기업에 뒤늦은 '이자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는 AI와 반도체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반도체 확보, 전력망 확충 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달금리까지 오르면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은 “금리가 5.5~6%로 상승 시 성장세가 그에 상응해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입에 의존한 AI 투자의 경제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계발 충격도 우려된다. 금리가 뛰면 이자 비용이 늘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빚투’(빚내서 투자) 심리도 얼어붙어 기업 자금 조달 시장까지 영향을 준다. 시장 한 관계자는 “항공, 호텔, 식음료, 자동차 등 소비자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전례 없는 신용 충격(credit shock)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자금 편중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AI 투자에 필요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국채 발행이 맞물리면서 자본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채권시장에서 한정된 투자자금을 두고 빅테크의 회사채가 국채와 경쟁하며 세계 채권 시장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창구는 연준이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급등하고 있다. 미국 담보부 이익률 금리(SOFR)는 연 3.90%(28일 현지시간 기준)로, 연준의 정책금리(연 3.75~4.00%) 하단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 일시적 2주택 처분 2년으로 단축… “시장 영향은 제한적”

기존 보유자 소급 적용 제외  
갈아타기 ‘선매도 후매수’ 늘듯  
단기 매도 압력은 다소 커질 전망  
임대사업자 매물 호출 가능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들지만 주택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갈아타기 수요의 ‘선매도 후매수’를 촉진해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높아질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을 줄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이른바 ‘블로소득’을 억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다만 기존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고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장 영향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처분기한을 1년 줄이는 것만으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기는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존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아차피 집 한 채를 팔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현진 기자

다른 한 채를 사는 갈아타기 수요이기 때문에 결국 ‘팔고 살 것’이나, 사고 팔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한국부동산융합연구원 원장)도 매물 증가나 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권 교수는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과 관계없이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사람들은 이미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팔지 않은 사람은 계속 보유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처분기한을 1년 줄인다고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판도를 바꾸거나 집값을 안정시킬 정도의 조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처분기한이 짧아진 만큼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움직임은 종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며 “현재 무주택자의 매입세가 그만큼 강하게 뒷받침되는 여건은 아니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조정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갈아타기 수요자의 매매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분기한이 1년 짧아진 만큼 새 집부터 산 뒤 기존 집을 처분하기보다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는 ‘선매도 후매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앞으로는 선매도 후매수를 지키라는 신호로 보면 된다”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나홀로 아파트에서 대단지로 옮기는 경우처럼 기존 주택이 제때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팔고 사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도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 만큼 종전보다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 보유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세차익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해석했다. 집을 한 채 더 산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두 채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면, 두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진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얻는 시세차익을 ‘블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임대사업자 매물 풀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시한을 둔 조치는 실제 매물을 끌어내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위원은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만큼 특히 비강남권에서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최근 시장의 매물 가뭄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매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임대시장에서는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도를 유도하면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임대공급을 규제하면 결국 그 부담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lhj@



metro

배경훈, 독파모 중단설 일축  
프론티어 AI와 양축 추진  
산업·사회 현장 맞춤형 AI 확산 강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중단설’을 공식 부인했다.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는 대한민국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고, 독파모는 AI가 산업과 사회 곳곳에서 쓰이게 하는 두 개의 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최근 독파모 2차 평가 기준에 대해 잡음이 일자 정부가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최상위급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배 부총리는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엑스에 대한민국 독파모는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 취지를 바로잡기 위한 설명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AI가 모두 초거대 프론티어 모델일 필요는 없다”며 “제조·금융·의료·공공서비스와 퍼지컬 AI 등 각각의 현장에서는 비용과 속도, 보안, 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의 AI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피력했다. 앞서 그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 프론티어 모델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AI는 이제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기술을 넘어 수학과 과학의 난제를 풀고, 사이버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전략기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성 기자 msjo@



metro



# 美 텍사스, AI 파운드리 격전지로… 삼성전자-TSMC ‘맞붙’

삼성전자, 연내 美 텍사스주 테일러 1기 팹 가동, 2기 팹 착공  
AI·HPC용 반도체 수주 확대 방침

TSMC, 델러스 지역 진출 검토  
현실화 땀 생산능력 확보 경쟁

삼성전자와 TSMC의 인공지능(AI) 파운드리 경쟁이 미국 텍사스를 중심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현지 생산 능력을 늘려 AI 반도체 수주 확대에 나선 가운데 TSMC도 두 번째 미국 생산기지로 텍사스를 검토하면서 첨단공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1기 팹을 올해 말에 가동하고 연내 2기 팹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2기 팹은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테일러 공장의 생산 능력을 늘려 AI·고성능컴퓨팅(HPC)용 반도체 수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파



삼성전자.

운드리 사업의 무게를 AI·HPC로 옮긴다. 전체 파운드리 매출에서 HPC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8%로, 사업부 출범 당시보다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2029년 이 비중이 6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객사도 현재 출범 당시의 약 3배에서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AI·HPC 수요에 대응해 초미세공정 고도화에도 나선다. 2028년 3세대 2나노(nm·1nm=10억분의 1m) 공정을 양산한 뒤 이듬해 1.4나노로 전환해 첨단 공정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 가운데 TSMC도 텍사스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TSMC는 애리조나에 이은 두 번째 미국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로고. /AP·뉴시스

생산기지 후보로 텍사스주 델러스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신규 생산기지에 첨단 웨이퍼 공장 6곳을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TSMC가 공식 투자 계획을 발표하거나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TSMC의 텍사스 진출이 현실화하면 양사는 현지에서 첨단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일러에도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TSMC까지 델러스에 생산기지를 추가할 경우 텍사스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TSMC의 미국 파운드리 투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양사의 점유율 격차가 여전히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TSMC의 점유율은 72.5%로 삼성전자(5.9%)를 크게 앞섰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생산능력과 AI·HPC 고객을 늘려 점유율 격차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미정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지난 29일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워크 2026’에서 “2029년에는 HPC 고객사가 과반수가 되고 매출 구조에서도 HPC가 절반을 훨씬 넘어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스마트폰 넘어 IT용 OLED 키우는 韓… 中 8세대 추격에 경쟁 격화

올해 스마트폰 OLED 비중 60.5%  
삼성D, 8.6세대 OLED 양산 돌입  
LGD, 게이밍 OLED 모니터 시장 공략  
BOE·비전옥스, 8세대급 양산·투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을 넘어 노트북과 모니터 등 정보 기술(IT) 기기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출하량에서 OLED 비중이 처음으로 액정표시장치(LCD)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도 8세대급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경쟁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30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출하량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60.5%로 전망됐다. LCD 비중은 39.5%로



LGD디스플레이 ‘39인치 21:9 5K2K 게이밍 OLED’.

/차현정 기자

OLED가 출하량 기준 처음으로 LCD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급형 스마트폰까지 OLED 채택이 늘어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 점유율도 올해 합산 57.3%로 지난해 53.8%보다 3.5%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위축은 부담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스마트폰용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출하량은 7억7800만장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7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2026’에서 “칩플레이션” 영향으로 스마트폰과 IT 기기 물량이 줄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의 가격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업체들은 고부가 모바일과 IT용 OLED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이 이달 공개한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에 폴더블 OLED를 전량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분기 글로벌 폴더블 OLED 시장에서 삼

성디스플레이의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8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충남 아산 A6라인에서 8.6세대 IT OLED 양산에도 들어갔다. 2023년부터 4조10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생산라인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등 중형 OLED 시장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LG디스플레이는 게이밍 OLED를 중심으로 모니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1일 세계 최초로 24.5인치 720헤르츠(Hz) 게이밍 OLED 패널을 출시하며 24~25인치 e스포츠 영역까지 제품군을 넓혔다. 시장조사업체 시그마인텔은 글로벌 노트북 시장의 OLED 침투율이 올해 6%에서 2030년 1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T용 OLED 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중국 업체들도 생산능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BOE는 지난 6월 중국 청두에서 8.6세대 AMOLED 생산라인 양산에 들어갔고 비전옥스와 TCL CSOT도 8세대급 OLE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28년에는 모바일·PC용 8.6세대 OLED 생산 능력에서 중국 업체들이 약 70%, 한국이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노트북과 태블릿 등에 쓰이는 8세대급 IT용 OLED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면서 향후 IT OLED 시장의 가격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업체들도 폴더블과 게이밍·IT OLED 등 고부가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수출과 원가 경쟁력, 프리미엄 고객사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자산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제도 처리 보류해 달라”

지배주주 전량, 일반주주 일부 매각 시  
일반주주 기업가치 부담·위험 떠안아

국내의 자산운용사들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배주주의 선행매수를 허용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배주주가 보유 지분을 먼저 전량 매각한 뒤 일반주주에게는 일부 지분만 팔 기회를 주는 구조가 주주 간 매각 기회를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내의 자산운용사 18곳은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란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10월 1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이정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756개 기업의 평균 추가순자산비용(PBR)은 1.31배인 반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30%인 746개 기업의 평균 PBR은 2.94배로 나타났다”며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낮은 기업가치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개매수 이후 일반주주가 계속 보유하게 될 잔여 지분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일부 지분만 매각하게 된다면, 일반주주는 기업가치에 대한 부담과 위험을 계속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용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 구조다. 정부위안에 따르면 인수자는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한 뒤, 50%+1주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물량을 공개매수할 수 있다. 일반주주들은 공개매수 물량을 나눠 매각해야 하는 반면, 지배

주주는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어 주주 간 매각 기회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운용사들의 주장이다.

운용사들은 정부위안이 최근 강화된 일반주주 보호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정 스톱어드십 코드에 따라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와 인수자 간 선행매수가 허용되면 기관투자자가 일반주주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역시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주주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지배주주와 직접 협상해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과는 제도적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 운용사 관계자는 “주주들이 향후 자신의 주식을 제값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일반주주는 일부 지분만 매각하는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방



라이프자산운용, 레인메이커자산운용, 머스트자산운용,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VIP자산운용, 블래쉬자산운용, 슬기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캄투자일임, 퀴드자산운용, 타이거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페트라자산운용, MY.ALPHA Management, Oasis Management 등 국내외 운용사 18곳이 30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하은 기자

식으로 굳어진다면 주주들의 기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며 “특히 경제선상에 있는 기업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선행매수를 제한하는 사례로 거

론된다. 2026년 5월 시행된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후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개매수에서 매수 희망 물량이 초과하면 안분비례 방식으로 배분하고, 취득 후 지분율이 3분의2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잔여주식 전부를 매수하도록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이것은  
손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



오늘의 박수 뒤에는  
수년간 땀흘린 손이 있다

# 손을



한 번의 환호 속에는  
수천 번 응원한 손이 있다

# 놓지



손에는 커다란 힘이 있다  
지금, 뜨거운 영광을 이뤄낸  
대한민국 핸드볼처럼

# 안아



대한민국 핸드볼  
지금까지의 20년처럼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 DMZ 北 지뢰 매설… 여야, ‘누가 막았어야 했나’ 책임 공방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추가 발견  
여야, 북한 정전협정 위반 규탄  
책임 소재·정부 대응 놓고 정면 충돌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 군사 분계선(MDL) 남쪽에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여당도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들어 대북 안보 공백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를 폐기해야 비로소 사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29일 실시한 3일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반(反)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최소 4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때문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유실’ 가능성을 언급하던 더불어민주당도 강도 높은 대북 규탄 발언을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 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다”며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측의 ‘국경선 요새화’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4월부터 포착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방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도발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냐고 하는데, 2024년 4월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나”라며 “지형 변화 흔적이

나온 후부터 합참, 한미가 연합으로 계속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현장을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조사에 들어갈지 긴밀하게 협의해왔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유엔 연설에 따른 현장 조사 지연, 외압에 따른 조작·은폐 의혹 제기는 근거가 전혀 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고의성’을 갖고 지뢰를 매립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지뢰 매설 자체는 명백한 정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등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협정 위반이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대응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의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이 찢기리 종전 협상을 구걸할 때 북한은 지뢰 매설을 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정전협정도 어기는 북한과 어떻게 종전을 논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북한의 김여정은 정전협정 위반을 전면 부

인하며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했다”며 “이처럼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이다. 북한 앞에 조아린 고개를 들고 제발 참혹한 안보 현실을 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허접한 음모론 프레임을 그만두고 대북 초저자세가 초래한 참극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중진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의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재개와 김정은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유엔 연설 발언을 공식 취소하고, 지뢰 폭발로 평생의 상처를 안은 전상장병들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며 “‘상응하는 조치’라는 말뿐인 립서비스로는 안된다.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전면 재개하고, 김정은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할 김정은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가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맡길 최고 수위의 국제 금융 제재와 해외 은닉 자산 추적 및 압류,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박경수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李 대통령 “우리 손으로 만든 이지스함”

국산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  
자주국방·방위산업 육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하는 자리에서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 축사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호김종서함은 19년 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된 6척의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6번째 함정으로,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다. 진수식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정부와 군 주요 직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외교사절단,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및 방위산업체 관계자, 울산 지역 학생, 대한민국 명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9년 전, 바로 이곳 울산 미포만에서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함차게 바다로 나섰다”며 “이 연단에 서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연설문을 잘 만들어왔는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저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킬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이지스함을 만들기 결정한 것이 24년 전”이라며 “그 첫 배가 세종대왕함이었고, 대호김종서함이 오늘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띄우는 이 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함은 우리가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라며 “빌려 쓰던 시절이 있었고 사다 쓰던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건조해 스스로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또 국산 이지스함을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엔 조선산업의 위상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만 해도, 이곳 울산 미포에 모래밭, 비뚤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모래사장에서 시작한 우리 조선업이 이제는 그 어렵다는 LNG 운반선부터 세계가 부러워하는 해군 이지스함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조선산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다. 우수한 품질, 정확한 납기, 확실한 후속지원을 갖춘 우리 조선소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찾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우뚝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다”며 “조선산업을 국가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초격차 국가 핵심 산업인 방위산업의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호김종서함은 겉으로 보면 한 척의 배일 뿐이지만, 안에는 수백킬로 배를 탐지하는 레이더, 수백개의 표적을 분석하는 무기체계, 그리고 이 모두를 묶어내는 소프트웨어로 가득하다”면서 “단순히 배를 짓는 기술만으로 이런 최첨단 함정을 만들 수 없다. 우리 방위산업 역량이 이 안을 하나하나 채워왔기 때문에 이 배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다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기술이 곧바로 전력화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우리의 방산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수출과 해외 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장동혁 “AI 발전 길 터야… 당이 정책 지원”

국민의힘 ‘AI 친화 정당’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인공지능(AI) 정책과 관련해 “기업도 국민도 모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치가 마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앞장서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굿모닝 주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AI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국민 삶과 나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글로벌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고 발전시킬 부분들을 발전

시키고 길을 터야 할 부분들은 터야 할 것”이라며 AI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위원장인 조승환 의원은 “우리당은 AI프렌들리(친화적인) 정당”이라며 “AI속도 조절론이 나오지만 동시에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를 규제만 할 수도 없고 AI가 불러올 인류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AI시대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서 있는지 좌표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그 위에서 AI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 수요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양항자 최고위원, 박준태·이인선·최보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 국정원 “김여정 담화, 北 연관성 차단 의도”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브리핑

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부장의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입장에 대해 절제하는 기조로 북한관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영하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는 이날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언론 브리핑에서 “담화 내용을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평장히 로키(low-key·절제 기조)로 담화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정보위 여당 간사는 “담화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하고 있다”며 “아울러, 기존 담화의 주제가 군부였는데, 김 총무부장이 내는 등 몇가지 근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여정 총무부장은 전날(29일)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통해 이번 DMZ 지뢰폭발 사고가 10여년전 ‘북한지뢰 사건’과 비슷하다며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더 크게 자라날 아이들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지원

·어린이 경제 뮤지컬 공연 개최  
·어린이 금융교실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운영

## 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 공백 최소화

·100호 어린이집 건립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 자연을 주제로 34년째 이어온 환경 미술대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벽 허물어 4000명 임직원 ‘연결’... “금융 24시간, 이상무!”

## Q 르포 | 하나금융 새 동지 ‘청라 헤드쿼터’ 가보니

서울의 뻥뻥한 빌딩 숲을 벗어나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섰다. 시야가 한층 넓어졌다. 탁 트인 도로 끝으로 거대한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다.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길게 뻗은 ‘청라 헤드쿼터’다. 지난 9월부터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하나둘 새 동지를 틀기 시작한 곳이다.

### ◆ 벽 없애고...4000명이 만드는 ‘연결의 공간’

여러공간이 유려한 곡선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층과 층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진 헤드쿼터는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만8503㎡(약 3만8872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 같은 구조에는 하나금융이 청라 헤드쿼터에 담고자 한 ‘연결’의 의미가 녹아 있다. 단순히 여러 계열사가 한 건물에 모여 근무하는 것을 넘어 임직원 간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촉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하나금융은 한 층당 1100평에 이르는 업무공간에 부서를 구분하는 벽을 없앴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그 뒤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다. 공간의 구조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를 바꾼다는 의미다. 하나금융은 청라 헤드쿼터를 ‘벽 없는 사무실’로 구현했다. 부서와 관계사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어 자연스러운 만남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협업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익숙했던 ‘내 자리’라는 개념도 흐렸

다. 직원들은 노트북을 들고 그날 해야 할 일에 맞춰 자리를 고른다. 집중이 필요하면 그에 맞는 공간으로, 동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 협업 공간으로 이동한다. 앱과 웹으로 좌석과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고 복지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5G 기반 무선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PC(VDI), 메신저, 소프트웨어 등도 적용했다.

하나금융의 청라 이전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9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에 이어 생명·증권·카드·저축은행 등 주요 관계사들이 앞으로 두 달에 걸쳐 차례로 합류한다. 이전이 마무리되면 약 4000명의 임직원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서울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청라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

### ◆ 데이터도 청라로...24시간 뛰는 ‘디지털 심장’

하나금융은 사람만 청라로 모이게 하지 않았다.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와 IT 인프라도 한곳으로 모았다. 청라 헤드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통합



벽 없는 청라 헤드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회의하는 모습(위)과 ‘청라그룹 헤드쿼터’ 전경. /나유리 기자·하나금융그룹

지하 7~지상 15층, 3.9만평 규모 부서·관계사 물리적 경계 허물고 자연스러운 만남 속 아이디어 생성 계열사 데이터·IT인프라도 모아 2년 후 AIDC 전산실도 입주 예정

데이터센터’다.

2017년 문을 연 통합데이터센터에는 은행·증권·카드 등 계열사의 IT 시스템이 한 데 모여 있다. 지하 1층~지상 16층, 연면적 약 6만6000㎡. 숫자만으로는 좀처럼 규모가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등 수많은 금융 거래를 뒤에서 떠받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이 달리 보인다. 하나금융이 이곳을 그룹의 ‘디지털 심장’이라고 부



르는 이유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데이터센터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였다. ‘멈춤’이다. 금융서비스는 한순간의 장애도 곧 바로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건물 곳곳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장치가 겹겹이 마련돼 있었다.

침수 위험을 고려해 전기실은 지상 2층에 올렸다.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주요 설

비를 이중화하고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비상발전 설비도 갖췄다. 배터리 설비에는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한 냉각·안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평소에는 좀처럼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금융의 24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곳 역시 24시간 멈출 수 없다.

7층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한창이다. 약 2년 뒤 이곳에는 AI 데이터센터 전산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관하고 금융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데이터센터의 핵심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AI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연산까지 이곳에서 감당하게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제는 AI를 빼놓고 금융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기관 곳곳에서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늘어날 AI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용 전산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라 헤드쿼터를 둘러보는 내내 ‘연결’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다. 통합데이터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헤드쿼터가 서울 곳곳에 흩어진 사람을 한곳에 모았다면, 이곳은 데이터와 기술을 한데 모았다. 서울에서 청라로 옮겨온 것은 사무실만이 아니었다. 사람도, 데이터도 청라로 향했다. 하나금융이 그리는 미래도 이곳에 조금씩 모이고 있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 하나금융 보험형제, 기본자본 50% 시험대

### 내년 기본자본 K-ICS 50% 도입

하나생명, 지급여력 14.26% 불과  
미래이의 ‘실제 순이익’ 전환 과제  
하나손보, 키스 비율 22.43%  
2000억 유상증자 확보 자본 지켜야

하나금융 보험계열사인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의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키스) 비율은 각각 14.26%, 22.43%로 금융당국이 내년 부터 도입하는 50% 기준을 밑돌았다. 연 말 임기를 앞둔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의 이익을 기본자본으로 쌓아야 하고,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는 2000억원 유상증자로 회사 산출치상 50%를 넘긴 비율을 지키면서 적자를 끊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 ◆ 자본확충 ‘질’ 같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지난 6월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7월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나생명도 최근 연 6% 금리로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두 회사가 올해 조달한 자금은 총 4500억원이지만 자본확충의 성격은 다르다. 두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 은 K-ICS상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전체 K-ICS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기본자본 비율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보통주 유상증자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직접 늘린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기본자본 K-ICS 비율에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

50% 기준을 도입한다. 내년 3월 말 기준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203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현재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K-ICS와 함께 기본자본의 추적 속도까지 관리해야 한다.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하나생명의 전체 K-ICS 비율은 138.3%였지만 기본자본 K-ICS 비율은 14.26%에 그쳤다. 하나손보도 전체 K-ICS 비율은 152.13%였지만 기본자본 비율은 22.43%였다. 전체 지급여력은 규제 기준을 웃돌았지만 자본 구성에서는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았던 셈이다.

다만 하나손보는 6월 말 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와 3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기본자본 비율이 50%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 이상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2000억원 유상증자와 3분기 손익, 요구자본 변동까지 반영한 수치”라고 말했다.

하나생명의 경우 1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이 전체 K-ICS 비율을 끌어올리

는 효과가 있지만 기본자본 비율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본자본을 늘리려면 이익을 누적해 이익잉여금을 쌓거나 보통주 자본을 보장하고, 요구자본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

◆ 생명은 이익 축적·손보는 적자 차단  
하나생명의 상반기 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보장성보험 판매와 보험계약자(CSM) 상 각 증가에 힘입어 193억원으로 31.3% 늘었다. 6월 말 보유 CSM은 8087억원이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인식할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계약기간에 걸쳐 나눠 이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CSM 증가가 즉시 기본자본 확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생명은 보장성 보험을 통해 확보한 미래 이익을 실제 순이익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손보의 과제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기본자본을 추가 손실로 다시 소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손보는 하나금융지주 연결 기준 상반기 71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194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거래적 가정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른 약 505억원의 일회성 손실을 제외하더라도 207억원가량의 손실이 남는다.

다만 6월 말 CSM 잔액은 28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3% 증가했다. 장기 보장성보험 확대를 통해 향후 이익 재원은 늘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보험손익을 개선해 유상증자 효과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다.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와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는 모두 2024년 1월 취임해 연임하고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김주형 기자 gh471@

## 염창역 등 11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 약 1.8만 가구 공급 예정

서울 양천구 염창역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일대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 약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초구와 마포구에서도 처음으로 후보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3년여 만이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이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염창역 남측으로 4222가구가 계획됐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에는 4040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같이탈 수 있는 효창공원앞역과 가까운 곳이다.

마포구의 첫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망원체육공원 인근은 94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지다. 망원한강공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와 가깝다. 서초구에서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동측이 918가구 규모 역세권 후보지로 선정됐다.

다른 역세권 후보지에는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1663가구),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888가구),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755가구)이 포함됐다. 저층주거지 후보지는 강서구 화곡역 동측(2335가구), 광진구 성동초 인근(254가구), 은평구 백련산서측(961가구),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935가구)이다.

국토부는 이달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주민의 향토를 높이거나 사업 구역을 조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성채리 기자 cr56@

## KB국민은행 ‘GTX-C’에 4.4조 금융조달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와 금융약정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4조 3742억원 규모의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사업시행법인인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와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역을 시작으로 의정부, 서울 청량리, 삼성, 양재 등을 거쳐 수원역까지 있는 총연장 86.46

km, 정거장 14개소 규모의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완공 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0분, 수원역까지 5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금융주선은 19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했다. 선순위대출 3조 1300억원과 자본금 및 중·후순위대출 등 펀드 1조 2442억원으로 조달한다.

KB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대표주선기관으로 참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한화그룹, KAI 경영참여 본격화 ‘항공·방산 패키지’ 시너지 시동

전투기 엔진 등 협력범위 확대  
경영 참여방향 국감 쟁점 전망  
독립성 유지·이해상충 해소 과제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완제기 역량과 자사의 항공 엔진·무장 역량을 결합해 추진하는 ‘항공·방산 패키지’ 시너지 구상이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KF-21용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수주전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선 한화의 KAI 경영 참여 범위와 향후 계획이 추가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사업비 약 7535억원(2026~2033년) 규모의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가 6~8일 진행된다. ADD는 12일 협상대상 업체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내 계약을 마칠 예정이다. 별도로 재공모한 레이더 제어기·레이더·탐색기 3개 품목은 2일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KF-21의 핵심 무장인 국산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화가 구상하는 완제기·무장 결합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수주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

스페이스(D&A)·현대로템 진영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체 덩티드 램 제트 추진기관 연구 실적과 정부 과제 수행 경험(2021년 이후 6건 중 5건 수행)을 앞세운다. LIG D&A는 KF-21 단거리 공대공-II 및 장거리공대지유도탄 개발 경험을, 현대로템은 추진기관 핵심기술 과제 수주 이력을 내세워 기술 맞대결을 펼친다.

한화가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꾼 가운데 양사의 항공·방산 협력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현재 KAI 지분 15.8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화는 이미 KF-21 최초 양산 부품(4731억원), 전투기 엔진, AESA 레이더 및 임무컴퓨터를 공급하는 KAI의 핵심 파트너다. 한화는 이에 머물지 않고 자사의 엔진·레이더·유도무기와 KAI의 완제기 체계종합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최근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과 KF-21·FA-50 무장 통합 및 공동 수출 마케팅 MOU를 잇따라 체결했다.

KAI는 LIG D&A, 현대로템 등 다른

무장체계 기업들과도 항공무장 개발 및 패키지 수출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한화가 구상하는 시너지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향후 경영 참여 방향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 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감에서는 한화의 추가 지분 확보 계획과 이사회 진입 여부,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의 지분 매각 시 대응 전략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완제기 체계종합업체로서 KAI의 독립성 유지와 이해상충 해소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KAI 노동조합은 경영정보 접근 및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내달 14일 서울 상경집회를 예고하는 등 한화의 경영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의 KAI 경영 참여 구상은 한국 항공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너지 차원”이라며 “국감 등을 통해 기존 협력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metro

## LS전선·가온전선, 케이블 등 美 공급 확대

추가 수주·실적 성장 기대감

LS전선과 자회사 가온전선이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수요 증가에 맞춰 케이블·버스덕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서버 고성능화로 대용량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설비 수요가 늘면서 양사의 공급 경쟁력이 추가 수주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설비 발주가 LS전선의 버스덕트 공급과 가온전선의 현지 케이블 생산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LS전선은 국내에서 생산한 버스덕트를 가온전선의 미국 자회사 LSCUS를 통해 현지 데이터센터에 공급한다. LSCUS는 중·저압 케이블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영업·엔지니어링·납품·사후관리도 담당한다.

LS전선이 지난 5월 LSCUS와 체결한 버스덕트 장기 공급계약의 예상 공급액은 약 2조~4조원이다. 계약기간은 2030년 말까지다.

LSCUS는 글로벌 빅테크와 생생형 AI 기업에 이어 AI 클라우드 사업자로 공급 대상을 넓혔다. 지난 8월에는 미국 AI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2000억원 규모의 버스덕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제품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한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도 진행하고 있다. LS전선

은 구미 공장 증설과 멕시코 생산법인 건설이 연말 완료되면 버스덕트 생산능력이 현재의 약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지 공급 확대는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LSCUS는 올해 상반기 미국 공장 가동률 100%를 기록했으며, 매출 2884억원과 순이익 216억원을 거뒀다.

LS전선은 생산능력 확충과 함께 서버 고성능화에 대응할 제품군도 보강하고 있다. 지난 29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 2026’에서 서버랙 내부용 버스바와 커넥터를 공개했다. 랙 인군까지 대용량 전력을 전달하는 버스덕트에 이어 랙 내부에서 전력을 분배·연결하는 제품까지 확보했다.

가온전선의 케이블 공급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발전설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직접 추진하는 자체 발전소 구축 사업에서 약 500억원 규모의 배전케이블을 수주했다. LSCUS는 가공선 생산설비 투자도 추진해 기존 배전 중심의 미국 사업을 송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증설은 내부 배전설비부터 발전소와 연결망까지 전력 인프라 전반의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미국에 이어 국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신설 등 설비 확충도 양사의 케이블·버스덕트 판매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한국GM, 뷰익 론칭… ‘엘렉트라 E7’ 출격

엘렉트라 E7, PHEV 형태 채택  
“한국 고객에 새로운 선택지 제시”

“뷰익은 120년 이상의 헤리티지와 차별화된 디자인, 직관적인 기술, 편안한 주행 특성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한국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핵터 비저레알 한국GM 사장은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뷰익 브랜드와 새롭게 출시한 엘렉트라 E7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뷰익이 선봉장으로 내세운 엘렉트라 E7은 전장 4850mm 전폭 1910mm 전고 1675mm 휠베이스 2850mm 크기를 갖춘 모델로 파워트레인인 1.5리터 자연흡기 엔진과 165kW 구동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형태를 채택했다. 배터리는 31.7kWh 용량을 탑재해 복합 기준 최대 126km를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다. 전기모터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면 추가 주유 없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한국GM이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공개한 뷰익 엘렉트라 E7에 적용된 냉장고와 테이블 모습. /양성운 기자

수 있는 1000km 이상의 통합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직류(DC) 급속충전 지원으로 배터리를 30%에서 80%까지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은 소비자들의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15.6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와 8.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했다. 특히 2열 듀얼 멀티 테이블과 빌트인 냉온장고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탑재했

다. 여기에 차량의 배터리 전력을 외부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통해 차량 안팎에서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커넥티드 서비스 ‘온스타’도 적용했다. 온스타 앱을 통해 차량 상태 확인과 원격 시동, 실내 온도 설정, 잠금·해제 등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LG 마이컬’ B2B 사업 확대

스타벅스와 ‘마이컬스타’ 이벤트

LG전자가 텀블러 전용 세척기 ‘LG 마이컬’의 활용처를 넓히며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에 나선다. 스타벅스와 다화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협업에 나서는 한편 기업과 군부대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광고·제휴를 접목한 신규 수익 모델을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오는 오는 31일까지 LG 마이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이벤트 ‘마이컬스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에 설치된 LG 마이컬으로 텀블러를 세차려 세척한 뒤 앱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e카드와 무료 음료 쿠폰 등을 제공한다.

LG전자는 공공기관과 ESG 활동을 연계하며 공급처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흥원이 지원하는 기업에 LG 마이컬을 공급하기로 했다. 양사는 일화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LG전자가 다화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텀블러 전용 세척기 ‘LG 마이컬’ 사용 인증 이벤트를 연다. /LG전자

활용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공군 오산기지에 LG 마이컬 10대를 공급한다. 군 장병들이 병영에서도 텀블러 등 다화용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B2B 수익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제품 디스플레이를 광고 매체로 활용하고, LG 마이컬 앱에서 광고 시청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쿠폰으로 교환하는 리워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조선업계, 임단협 희비… HD현대重 ‘진전’ 한화오션 ‘교착’

HD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마련  
한화오션, 성과급 등 입장차 여전히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접점을 찾은 반면 같은 날 교섭에 나선 한화오션은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30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양

측은 기본급 12만원 정액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원금 200%,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본급 인상액에는 호봉 승급분 5만원이 포함됐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울산 본사에서 22차 본교섭을 열고 14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 6월 2일 첫 상견례 이후 120일 만이다. 교섭 과정에서는 임금 인상 폭과 고정급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졌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에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반면 한화오션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혜은 기자

## 현대차 ‘마이홈차저’ 구독 서비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충전 부담은 낮추고, 고객 편의성은 높은 구독형 충전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충전사업자 채비와 협력해 가정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구독 서비스 ‘마이홈차저’를 3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소유하고 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 등에 거주해 전

용 주차 공간을 보유한 고객은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홈차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7kW(킬로와트) 가정용 완속형 전기차 충전기 기기와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월 최소 약정 충전량은 300kWh, 충전 요금은 kWh당 245원으로 고객은 기기 및 설치비 없이 최소 약정량 기준 월 7만 3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채비 앱이나 채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보유여부를 인증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 SFA, 물류자동화 마지막 10% 공략 AI·로봇 앞세워 완전 무인화 도전

아산에 ‘ART 이노베이션 센터’ 개관 휴먼라이크 로봇핸드·자율주행 실증 피킹·상하차까지 자동화 범위 확대 내후년 기술 완성도 95% 이상 목표

SFA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결합한 물류 자동화 기술을 한곳에서 검증하는 실증센터를 열고 2030년 완전 무인화 구현에 속도를 낸다. 기존 이송·보관·분류를 넘어 사람의 작업이 남아있는 피킹과 상하차까지 자동화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SFA는 30일 충남 아산사업장에서 로봇 기반 자율제조 실증시설인 ‘ART 이노베이션 센터(AI Robo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를 개관했다. 센터에서는 휴먼라이크 로봇 핸드와 자율주행 로봇, 듀얼암 모바일 로봇, 로봇 비전, AI 기반 자율제조 소프트웨어 등을 실제 제조·물류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한다.

SFA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물류 자동화 기술 수준은 현재 약 90%다. 특정 고객사 한 곳의 자동화율이 아니라 입고·보관·이송·피킹·출하 등 각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 확보 수준을 의미한다.

남은 과제 중 하나는 ‘피킹’이다. 현재



김상경 SFA 대표이사가 30일 충남 아산사업장에서 열린 ART 이노베이션 센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석션 방식의 피킹 로봇으로 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약 70~80%를 처리할 수 있지만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흡착하기 어려운 제품 등 나머지 20~30%에는 추가 기술이 필요하다.

SFA는 사람의 손처럼 움직이는 로봇 핸드와 비전 기술을 활용해 이 영역까지 자동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봇의 이동 능력보다 산업 현장에서 물건을 정확하게

집어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는 ‘픽앤드플레이스(Pick&Place)’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상하차 자동화도 추진한다. 팔레타이징과 디팔레타이징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며 트럭 상차 기술도 개발 마무리 단계다. SFA는 피킹과 상하차 등 남은 기술을 추가해 내후년께 자동화 기술 완성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고 2030년 완전 무인화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실증센터는 고객사가 기술을 직접 확인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맡는다. SFA는 현재 다수 고객사와 로봇 기술의 개념검증(PoC)을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실제 적용할 고객사와 라인을 선정한다는 목표다.

제조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수작업 비중이 남아 있는 유통 물류 분야에서 로봇 기술이 먼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상경 SFA 대표는 “SFA의 ART 이노베이션 센터 개관은 SFA가 글로벌 시장에서 AI자율제조 로보틱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선도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 인천 송도 ‘K-바이오랩허브’ 첫 삽

중기부, 연세대 국제캠퍼스서 착공식 중앙·지방정부·학계 공동 프로젝트

바이오 스타트업 혁신 거점 역할을 할 ‘K-바이오랩허브’가 인천 송도에서 첫 삽을 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K-바이오랩허브 착공식을 개최했다.

K-바이오랩허브는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LabCentral)’을 모델로 해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 지원 인프라다.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공동 추진 프로젝트다. 연세대는 구축부지를 제공해 연구와 산·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건축비를 부담해 바이오 스타트업이 입주할 최첨단 시설을 건립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중기부는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 운영을 비롯해 고가의 핵심 연구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돕는다.

K-바이오랩허브는 이날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11월에 건물을 완공할 예정

이다. 완공과 동시에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60개사가 입주한다.

건물 1~2층에는 운영 통제실과 고가의 특수장비구역을 조성하고 3~7층에는 초기기업 지원공간 50개를, 8~9층에는 성장기업 공간 10개를 배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바이오 기업에게 필요한 17종의 범용성 연구장비 24대를 올해 10월까지 연세대 국제캠퍼스 임시공간에 우선 도입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완공에 맞춰 총 59종, 134대의 첨단장비를 구축한다.

K-바이오랩허브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연세세브란스 병원 등 인천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협력지구) 인프라와 연계해 스타트업-대학-앵커기업-병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9년부터는 입주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6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임상·인허가·투자 유치 등 60개사에 4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K-바이오랩허브는 대한민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는 핵심 요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대중기협력재단, ‘상생협력 모펀드’ 조성

KB금융과 첫 상생협력 모펀드 조성 30억 출연·총 50억 규모 투자 추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KB금융그룹이 출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상생협력 모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30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결성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는 지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생협력기금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이후 첫 사례다.

그동안 상생협력기금은 주로 협력사 중심으로 지원됐었다. 하지만 이번 K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은 중기부와 협의해 올해 신설한 ‘공동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돼 협력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KB금융그룹이 상생협력기금 30억원을 출연하고 협력재단은 이를 ‘상생협력 모펀드’에 출자한다. 모펀드 운용은 한국벤처투자가 수행하게 되며 향후 민간 자원 매칭을 통해 총 50억원 규모로 임팩트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2개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 모펀드 결성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이 기존 협력관계를 넘어 다양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며 “KB금융그룹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모펀드 조성 사례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재단 내 창업·벤처 전담 조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고 향후 회수되는 재원은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출자·회수-재출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중기중앙회, 기계설비업계 기업승계 지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업무협약 차세대 CEO 교육·제도개선 공동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손잡고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발굴과 대응에 협력하고 차세대 CEO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설명회 등을 공동 추진한다.

협약식 이후에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계설비업계 차세대 CEO 대상 기업승

계 지원세제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설명회도 공동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을 이끌어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계설비협회 추문갑 경영부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회원사들이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왼쪽 4번째부터)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성원 산자위원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

## 최승재 옴부즈만, 中企 규제애로 해소 행보

성장사다리 포럼서 제도개선 청취 납품대금·기술보호 등 현안 논의 창업기업 찾아 규제애로 점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산업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3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중소벤처·여성,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민의힘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초청, 올해 두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함께 했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담긴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60일→30일) 및 온

라인대형플랫폼의 대금정산기한(20일 이내) 도입 ▲벤처생태계 성장을 위한 벤처펀드 출자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유인책 마련 ▲팜테크 특화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과거와 달리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온라인대형플랫폼이 납품기업에게 20일 이내 대금정산을 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의뢰인이 비밀유지권 제도를 악용해 분쟁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등에 대한 충분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온라인 거래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오후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 성남에 있는 보스반도체에서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핸디라이프 이상호 대표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완속·저속 충전으로도 충분히 한데 제약이 많다”면서 “비어있는 저속 전기자동차 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니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희주 온즈온 대표는 “진료·상담 음성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가명처리해야 하는지, 기술적 조치를 하더라도 충분한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답답하다”면서 “음성 변조나 텍스트 변환, 개인식별정보 삭제 등 가명처리 단계별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 접수기간 연장 공고

보다 많은 우수 SW·AI 제품·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및 혁신 인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



### 접수마감 연장

~~2026. 9. 30.(수) 18:00~~



**2026. 10. 16.(금) 18:00**



### 시상

**2026년 11월 말 예정**

2026년 9월 29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I)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SW·AI 제품·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시상 부문

| 시상 부문         | 시상 대상                              |
|---------------|------------------------------------|
| 제품·서비스 부문     |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
|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
| 인재 부문         |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



### AI 활용 우수사례란?

AI 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의미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 구분      | 시상 내용                                                                         |
|---------|-------------------------------------------------------------------------------|
| 부총리상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 장관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 기관장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
| 언론·단체장상 |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



### 신청 안내

- 접수마감 : **2026. 10.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awards@kswict.or.kr](mailto:awards@kswict.or.kr)
-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시 상 : **2026년 11월 말 예정**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세부 심사기준 및 관련 서식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은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다운로드



###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심사  
(요건심사)

2차 심사  
(전문심사)

최종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시상



### 문의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 Tel. 02-858-8510

※ 본 공고는 2026년 8월 28일 최초 공고의 접수기간 연장 사항을 반영한 안내입니다.



# “100MW급 AIDC, 최대 3.5조 부가가치 창출”

AIDC 공급 부진 시 전방연쇄 3조 규모 클수록 직접 고용 줄어들어 잠재적 부담요인 ‘전기요금’ 지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지역 경제에 조 단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데이터센터 규모가 커질수록 직접 고용 효과는 낮아지고,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지역 전기요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고용·생산·부가가치 창출효과’에 따르면, 100M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시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구축하는 105MW급 AIDC의 경우 1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약 3조49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1조332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에 AIDC가 원활하게 공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100MW 당 최대 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AI에 의해 생성된 AI데이터센터 이미지.

되지 않을 경우 전방연쇄효과는 최대 3조 6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는 AIDC 공급 부족으로 기업의 AI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때 산업 전체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규모가 클수록 직접 고용 효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DC 수전용량 1MW당 직접 고용은 0.2~

3명 수준에 그쳤다. AIDC별 고용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다. 부산 명지녹산산업단지 AIDC는 1MW당 2.9명, 네이버의 세종 270MW급 AIDC는 0.9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AI 기업 메타가 미국 리치랜드 패리시에 구축하는 5GW급 AIDC는 0.2명에 그쳤다.

다만 직접 고용 1명당 3.5~5.5명의 추

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확인됐다. 건설 단계에서는 현장 일자리가 늘고 완공 후에는 데이터처리 등 IT 운영 인력 중심으로 고용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는 전기 요금이 지목됐다.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데이터센터 매출의 전기요금 탄력성은 0.009로 집계됐다. 이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시설 특성상 가동이 확대될수록 지역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의원실은 미국 지역 데이터 분석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거 서버실 수준의 데이터센터에서 능동적인 기기와의 AI 팩토리로 변화하며 생산·지역 성장 효과는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균형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계 병목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글로벌콤팩트 이사회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네이버 UNGC 글로벌 협업에 디지털·AI 활용 제안

네이버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글로벌 협업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UNGC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회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 등 주요 이사회 멤버들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

UNGC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2만5000여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다.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책임 경영을 지원한다.

최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UNGC의 글로벌 네트워크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디지털·AI 기반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협업 플랫폼 ‘네이버웍스’와 AI 기반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 플러스’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제안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선언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NGC의 ‘2026~2030 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최빛나 기자

## 파능스쿨-KBS아트비전 ‘AI 디자인 스쿨’ 진행

인공지능(AI) 아트 교육 기업 파능스쿨은 자사 소속 컨리 강사가 미디어기업 KBS아트비전과 함께 ‘AI 디자인 스쿨’을 3기까지 연속으로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정은 올해 4월 1기를 시작으로 5~6월 2기, 6~7월 3기로 이어졌다. 매주 한 차례 3시간씩 총 4주간 진행됐다.

1기에서는 방송 제작 방식을 접목해 가상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콘셉트 설계부터 로고·포스터 제작, 오프닝 영상과 LED 무대 영상까지 하나의 작품집으로 완성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수료생에게는 양사가 공동 디자인한 수료증을 발급했다.

3기 개강 전에는 입문자를 위한 ‘왕초보 챌린지’도 별도로 운영했다. 하루 30분씩 3일간 AI로 이미지·영상·음악을 만드는 체험 과정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 과정을 거쳐 정규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도 있었다.

파능스쿨은 2023년 4월 시작한 AI아트 교육 전문기업이다. 누적 수강생 2000명 이상이며 수강생 공모전 수상 실적은 50회 이상이다. 파능스쿨이 자체 개발한 파능A.I.는 이미지·영상·음악·음성 생성과 대화형 AI 기능을 제공한다.

/김보민 기자 kbm@

# 국민연금 가입조회·신청까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처리

카카오, ‘AI 국민비서’에  
국민연금 서비스 연계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시범 운영 중인 대화형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에 국민연금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용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임의가입 신청까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달 17일부터 AI 국민비서에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연동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임의가입 신청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국민비서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예상 보험료 계산 ▲임의가입 신청 등을 하나의 카카오톡 대화 흐름 안에서 지원한다.

이용자가 “국민연금 가입내역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할 수 있어?”라고 물으면 자격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알려준다. 희망하는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도 계

산할 수 있다.

실제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와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최종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이 필요한 단계에는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이나 가입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야 했다. 카카오는 이번 연동을 통해 임의가입 대상인 전업주부와 학생 등의 국민연금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향후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관련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대화 흐름으로 연결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카카오는 AI 국민비서 운영 경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도 활용한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대화형으로 구현해 온 경험을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과정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KT, 차세대 방송광고 솔루션 개발

OA코리아와 ‘인크리멘탈리치’ 선택

KT가 방송광고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KT는 글로벌 광고 대행사 OA 코리아와 차세대 방송광고 솔루션 ‘인크리멘탈리치’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양사가 개발한 인크리멘탈리치 솔루션은 인공지능(AI)을 통해 광고 노출 빈도가 낮은 시청자를 분석해 더 많은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광고주는 이를 활용해 동일 시청자에게 광고가 불필요하게 반복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

KT는 약900만대 지니TV 셋톱박스를 기반으로 시청 실측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캠페인 진행 상황과 광고 도달 성과를 신속하게 분석한다. OA 코리아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주의 예산과 채널 운영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안한다.



KT 직원들이 방송광고 솔루션 ‘인크리멘탈리치’를 통해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KT

또한 광고 캠페인 진행 중에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도달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전략을 보완할 수도 있다. 대시보드에서 캠페인별 도달 현황과 성과를 보여주고, AI 제안서로 광고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광고주는 이를 바탕으로 실측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와 실행 전략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KT가 내부 실증을 진행한 결과, 동일한 예산과 기간을 기준으로 광고 캠페인을 집행했을 때 인크리멘탈리치 솔루션을 활용한 캠페인의 도달률은 기존 방송광고 캠페인 대비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선 기자

## LG U+ “대기시간 없는 고객상담 구축”

2030년까지 AI 컨택센터 구현 목표

LG유플러스가 2030년까지 고객 상담시 대기시간이 없는 AI 컨택센터(AICC)를 구현한다. 이를 기업간거래(B2B) 수익 모델로 만들어 사업 매출을 연평균 50%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3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금천구 LG 가산디지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업 전략 및 성과를 소개했다. 핵심 전략은 ‘인소싱 AICC’다. LG유플러스가 자사 고객센터에 AI 기술을 먼저 검증하고 B2B 솔루션으로 기업에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가파른 발전 속도가 AICC 운영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다.

전국 17개 고객센터에서 축적한 수천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활용해 AI 콜봇·챗봇, AI 상담어브바이저, 상담 품질평가 자동화 기술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사 고객센터 운영 경험을 있는 전문 인력이 고객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 AI 연구원 역사원과 글로벌 빅테크 AI 모델을 활용해 상담 시나리오와 업무 절차를 자동 생성하고, 시뮬레이션과 실제 운영 데이터를 통해 성능을 검증·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현재 AI 콜봇·챗봇이 연간 약 800만 건의 고객 문의를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는 AI가 상담사에게 실시간 답변과 지식을 추천한다.

/조민선 기자

## SKT, 올해 고객만족도 3관왕 쾌거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1위 재탈환

SK텔레콤이 지난해 해킹 사고로 내렸던 KCSI 고객 만족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3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올해 국내 3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SK텔레콤은 27년간 KCSI 이동전화 부문 1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로 2위로 밀려났다. 올해 조사에서는 장기

고객 혜택과 통화 품질, 요금제 만족도 등 주요 항목에서 고객 만족도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정재현 CEO 취임 이후 추진한 ‘고객 신뢰 경영’ 아래 소통 채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화품질 제고가 이를 뒷받침했다. 정 CEO는 창사 기념일을 ‘고객 앞에 다시 서는 날’로 정하고 유통망, 공항 로밍 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 고객의 이용 경험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조민선 기자



# 반도체 실적 기대감에도… 4분기 증시 ‘금리·유가’ 변수

## 주요 증권사 4분기 전망

AI 투자 속도조절 우려, 증시 발목  
삼전·하닉 자사주 이달 매입 종료  
외국인 수급, 4분기 방향 가를 듯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는 박스권에 갇혔다. 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파괴적’ 금리 인상, 국제 유가 급등, 미국 국제금리 급등 등 대형 약재들이 증시를 짓누른 탓이다. 3분기 증시를 흔든 불안 요인이 여전히 가운데 이제 투자자의 시선은 4분기 증시로 향한다. 메트로경제는 대신·미래에셋·한국투자·신한투자·메리츠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4분기 전망을 들어봤다.

### ◆반도체 실적 기대에도… 지수 상승 속도는 변수

증권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4분기 코스피는 7500~9000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6000~9300선을 예상 범위로 제시했다. 다만, 상당 도달 시점이 내년 1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출 호조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은 상승 요인이지만, 유가와 채권금리가 안정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지수 범위가 넓은 만큼 같은 전망 안에서도 대외 여건에 따른 등락 가능성이 함께 반영돼 있다.

증권사들은 4분기에도 변동성을 예상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했다. 이유는 4분기부터 반도체 등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겠지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래대금과 고객예탁금도 줄고 있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중동 지역 전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한다”며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같은 날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 설령 종말의 전쟁이 오더라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는 외교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 매우 합리적 제안이 테이블 위에 있

다”고 했다.

치솟는 유가와 물가(미국 금리 인상 요인)는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30년물 국제금리는 이날 장중 5.613%까지 치솟으며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미 30년물 금리는 6일 연속 상승세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대규모 국제 발행에 대한 부담까지 겹친 영향이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가 최근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데 이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연) 총재도 런던의 한 행사에서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반도체가 위안이다. 한국수출입

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트렌드포스 등 분석에 기반해 지난 15일 공개한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IC(연산·제어 담당 반도체)의 가파른 성장 등으로 1조6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는 높이도 올라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5조9030억원에서 21일 기준 111조3772억원으로 3개월 사이 5% 상향 조정됐으며,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8조1291억원으로 석 달 전(76조9134억원) 대비 2% 상향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예상 실적에 비해 낮아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국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AI 관련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주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말과 내년 말 미국 연방기금금리 전망치를 종전보다 각각 0.5%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와 별개로, 거래 위축과 고금리가 시장 전반의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들어 거래대금과 고객예탁금이 줄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업종의 이익 전망이 낮아지

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반도체 주도력 유지 전망… 자사주 매입 종료는 부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목해야 할 업종은 있다. 이들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꼽았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AI 관련 투자와 수출 호조를 근거로 반도체 투자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4분기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메리츠증권은 AI 개발 속도 조절 논의가 나오더라도 AI 인프라 관련 주식의 전망을 곧바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AI 모델 간 경쟁과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외 업종으로는 대신증권이 방산과 은행을, 한국투자증권이 방산과 화장품 등 수출 관련 업종을 관심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이르면 10월 중순 종료될 전망이다. 두 대형 반도체주가 제공하던 수급 ‘방어막’이 걷히면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의 기존 순매수 규모를 고려하면 두 회사의 매입 물량을 기관만으로 대체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봤다. 매입 종료 이후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를 다시 사들이는지에 따라 지수의 상승 탄력도 달라질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국민연금 한 달 새 181조 줄었다… 국내 주식서 125조 ‘뚝’

### 기금 운용수익률 12%p 이상 하락 평가액 7월 말 1684조1730억 기록

국민연금 기금자산이 국내 증시 조정 여파로 한 달 만에 181조원 넘게 감소했다. 연초 이후 27%를 웃돌던 기금 운용수익률은 7월 들어 14%대로 낮아졌다. 특히 국내주식 평가액이 125조원가량 줄어들며 전체 기금 감소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1684조1730억원으로 집계됐다. 1865조5760억원이었던 6월 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181조4030억원(9.8%) 감소했다.

연초 대비 기금 운용 수익률은 7월 말 기준 14.84%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27.22%에서 12%포인트 넘게 내려앉은 것이다.

이는 국내 증시가 7월 들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6월 말 8476.48에서 7월 말 6595.45로 한 달 동안 약 22% 하락했다. 이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연초 이후 수익률도 107.37%에서 60.11%로 47.26%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국내주식 수익률은 주요 자산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연초 이후 상승률이 56.51%였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국

내주식 수익률은 여전히 시장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외에 해외주식은 10.72%, 대체투자는 4.09%, 해외채권은 0.72%를 기록했으며, 국내채권은 -3.36%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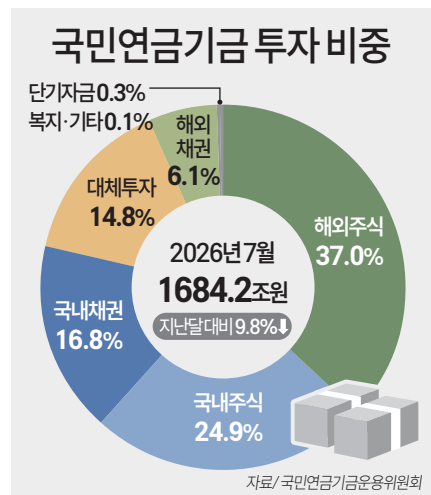
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국내주식 평가액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평가액은 6월 말 543조2040억원에서 7월 말 418조5580억원으로 약 125조원 감소했다. 전체 기금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29.1%에서 24.9%로 4.2%포인트 낮아졌다.

해외주식과 채권 등 다른 자산에서도 평가액 감소가 나타났다. 해외주식 평가액은 6월 말 661조원에서 7월 말 624조원

으로 약 37조원 감소했다. 대체투자는 261조원에서 249조원으로, 해외채권은 110조원에서 10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채권 역시 288조원에서 283조원으로 줄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은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가능성 우려로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전체 운용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및 해외 채권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 등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평가가치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초 대비 80.9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에는 이자·배당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등이 반영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 빚 독촉, 7일간 7회까지만… 채무자 요청 땐 최대 3개월 유예

### 금감원, 금융채권 추심 민원사례 안내 야간 연락·타인 채무 공개 ‘불법추심’

금융회사 등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금융채권에 대해 7일 동안 7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사고나 질병, 재난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채권 추심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추심 연락 횟수에는 방문과 전화, 우편, 이메일 등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통화를 끝낸 경우,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한 경우 등은 일부 횟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자택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주변에 채무 사실을 알려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전화·방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면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하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역시 불법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사고나 질병, 중대한 재난 등으로 즉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추심 연

락을 원하지 않는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을 지정해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법원 판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새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여부 등에 따라라도 소멸시효 계산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소멸시효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법원에서 소장 등을 받으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추심이 의심되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 등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수사 의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 상황이 어려운 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 aT, 멕시코 ‘한류열풍’·中 ‘마라톤대회’ 통해 K-푸드 알린다

aT, 멕시코 ‘2026 K-전시’ 참가  
K-드라마 속 수산시장 포차 마련  
김, 굴, 해조류 등 주요 수출 품목

中 ‘타이위안 전국 마라톤대회’서  
K-푸드 소비자 체험 행사 진행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멕시코를 찾아 K-수산식품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시식행사를 가졌다. 또 중국에서 개최된 유력 마라톤대회 출발지에서는 K-푸드 전용 홍보관을 운영했다.

aT는 9월 24~27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2026 K-전시: K-스타일’에 관한 모든 것’ 행사에 참가해, 방문객 대상으로 한국산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내보였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10~29세 인구가 총인구의 33%를 차지하는 만큼 젊은 소비층이 두터운 나라다. 특히 K-드라마와 K-팝 등 문화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한류 요충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6개 부처와 6개 기관이 참여했다. aT의 경우, K-드라마에 나오는 수산시장 포장마치를 연상케 하는 공간을 꾸렸다. 이 중 현지 식문화를 접목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K-전시 행사장에 조성된 K-수산식품 체험관.

한,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aT는 과카몰리와 참치 등 한국 수산식품을 토핑으로 사용해 직접 K-타코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 글로벌 인기 품목인 김, 게맛살, 미역을 활용한 요리·시식행사도 열었다. 배우 류수영의 쿡킹쇼도 현장 열기를 더했다. 류 씨는 중남미 대표 해산물 요리인 세비체와 유사한 매력을 지닌 한국식 납치물회를 소개했다.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시장 내 주요 수출 품목은 김과 굴, 해조류, 어묵 등이

다. 최근에는 현지의 비건·웰빙 추이와 맞물려 조미김 스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홍문표 aT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 수산식품에 관한 관심과 호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 뷰티, 푸드를 융합한 다부처 협업을 지속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K-수산식품의 수출 영토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aT는 또 지난 27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



중국 타이위안 마라톤대회 출발지에 설치된 K-푸드 체험관.

/aT

안에서 열린 ‘2026 중국 타이위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K-푸드 소비자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 대회는 매년 가을 개최되어 온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스포츠행사다. 세계육상연맹 ‘골드라벨’과 중국육상협회 ‘금메달’ 등급을 모두 획득한 대회이기도 하다. 작년에만 선수 약 4만 명이 참가했다. 2010~2025년 기간 누적 참가자 수가 약 60만 명에 달한다.

aT는 대회 출발지인 우이광장에 K-푸드 전용 홍보관을 설치했다. 마라톤 참가

자 및 현지 시민에게 홍삼, 간편식, 이너뷰티식품, 라면, 과자 등을 선보였다. 라면·떡볶이 등 한국 대표 먹거리 시식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또 이벤트플랫을 비롯해 즉석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부스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체험은 온라인 홍보와 구매로 이어졌다. 중국 주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연계한 인증 이벤트와 스포츠 인플루언서 홍보를 통해 K-푸드 체험 현장을 온라인으로 확산한 것.

대회 공식 홍보채널을 활용한 K-푸드 브랜드 노출도 늘렸다. 마라톤 메인무대와 코스 중간 광고판 등에 K-푸드 로고를 집중 노출하고, 대회 기자회견장에도 로고를 선보여 K-푸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올해 8월까지 한국산 농림축산식품의 중국시장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늘어난 10억8556만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28.1% ↑) ▲과자류(1.3% ↑) ▲조제분유(5.8% ↑)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부산항만공사, 동남아 항만·물류 연결 강화

항만·물류 중심지 싱가포르 지점 개소  
싱가포르해사항만청 등과 교류 발전  
해외사업 발굴·부산항 마케팅 확대

부산항만공사(BPA)가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현지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파크로열컬렉션 마리나베이에서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지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아세안(ASEAN) 시장 성장에 대한 대응이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인도네시아에 있던 동남아대표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지점을 설립한 것이다.

이 나라는 세계적인 환적 거점이자 글로벌 선사와 물류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밀집한 대표적인 해운·항만·물류 중심지다. 공사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현지 해사항만청(MPA)과 PSA 등 주요기관,



(왼쪽부터) Chris Robblee Vopak 회장, 최영순 HMM 동남아·오세아니아 권역장, 김철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김준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지점 개소식에서 리본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선사·물류기업과 상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사업 발굴 및 부산항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해외사업을 지원한다. 또 아세안 지역에서 신규 항만·물류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선사·화주를 대상으로 부산항의 신규 물동량 창출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개소식에는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준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 탄호순 싱가포르해사항만청 부청장, 조나단 골드너 APM 터미널 아시아·중동지역 CEO, 림 친 추안 PSA 동북아 CEO, 황주섭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의 선사·항만·물류기업 관계자 1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 전국 댐에 500MW 수상태양광 대폭 확충

수자원공사, ‘교차송전’ 방식 도입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댐 10여 곳에 총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신규 송전망을 짓지 않고 기존 수력발전 송전 선로를 함께 쓰는 ‘교차송전’ 방식을 새로 도입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소양강댐에 95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다목적댐 등 10여 곳으로 대상을 넓혀 총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자원공사는 특히 소양강댐을 비롯해 충주·안동·대청·주암댐 등 5곳에 건설될 약 4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에 교차송전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차송전은 일조량이 풍부한 낮 시간에는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내고,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등 일조량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수력발전 전력을 송전



수상태양광.

/유토이미지

선에 실어 보내는 방식이다. 추가 송전망 건설 없이 기존 전력계통을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송전설비 확충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주민 간 사회적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함께 나누는 상생 모델도 도입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육상풍력 발전사업 ‘1년 풍황 실측의무’ 폐지

기후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재현바람장 분석자료 제출로 대체

10월 1일부터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1년 이상 직접 바람을 측정해 제출해야 했던 실측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사업 초기 규제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풍력발전 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개정 고시에 따라 사업자는 1년 이상 풍황계측기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풍황자료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AI와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한반도 바람 분석 데이터다.

이를 통해 ‘사업지 선정→계측기 설치→1년 계측→자료 제출→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던 기존 5단계 절차가 ‘사업지 선정→기상청 자료 확인→허가 신청’의 3단계로 축소된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판단기준도 정비됐다.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 이내 지역을 유효 지역으로 설정하되, 중복 신청 시 허가 심사기준과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전기차 자동 충전·결제, 공공 호환성 검증

기후부, 오늘 기술 시연회 열어

앞으로 전기차 이용자는 충전기카드를 찾거나 스마트폰 앱을 켜지 않아도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충전과 결제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된다. 제조사와 충전사업자가 달라도 호환되는 공공 인증 기반의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가 본격적인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본원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전기자동차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PnC·Plug and Charge)’ 기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nC는 차량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기가 차량 내 저장된 암호화 인증서를 통해 차량을 자동 인식하고, 인증부터 충전·결제까지 일괄 처리하는 국제표준

기반 충전 기술이다. 최초 1회 회원 가입과 결제수단 등록, 차량 인증서 설치 과정만 거치면 이후부터는 실물 카드나 앱 인증 없이 곧바로 충전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검증하는 기술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 인증체계’를 적용해, 차량 제조사나 충전기 운영사가 서로 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기후부 보유 전기차를 비롯해 현대차 GV90, 기아 EV9, KG M 무쏘 EV, 메르세데스-벤츠 CLA, 테슬라 모델Y, BMW iX3 등 국내의 주요 전기차 6종을 채비·이브이시스-에스케이 시그넷의 공공급속충전기 3종에 차례로 연결해, 인증부터 충전, 결제 완료 문자 수신까지 전 과정이 차량 제작사와 관계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http://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햐터그룹**  
Haetter Group



# 남강유등·사천에어쇼까지… 축제·관광 명소 ‘경남픽 7선’

진주 유등·함양 산삼축제 등 선정  
사천 에어쇼·우주항공전 22~25일  
마산로봇랜드·김해 음악축제 포함  
밀양 매운맛축제 월말까지 이어져

경남도와 경남도 홍보협의회가 도민과 관광객을 위해 도내 축제와 관광지를 추천하는 ‘월간 경남픽(Pick)’의 10월 7선을 선정해 30일 공개했다.

‘월간 경남픽’은 홍보협의회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협업 홍보프로젝트로, 협의회 참여기관이 시의성과 희소성을 갖춘 홍보 소재를 추천하면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한다.

이번 ‘10월 경남픽’에는 ▲진주남강유등축제 ▲남해 설리 스카이워크 ▲함양 산삼축제 ▲경남마산로봇랜드 풀인 펌킨 페스타 ▲사천 에어쇼·우주항공방위산업전(GADEX)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페스티벌 ▲밀양 매운맛축제가 선정됐다.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열리며, 형형색색의 유등이 남강의 밤을 밝힌다. 수상불꽃놀이, 드론라이트쇼도 예정돼 있으며, 축제 기간 개천예술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함양 산삼축제는 10월 7일부터 11일



경남도 선정 ‘10월 경남픽 7선’ 카드뉴스.

까지 함양 상림공원에서는 진행된다. 산삼캐기 체험, ‘황금산삼 찾기’ 등 산삼과 심마니 문화를 주제로 한 건강·힐링 콘텐츠를 선보인다.

사천 에어쇼와 우주항공방위산업전(GADEX)은 경남도와 사천시,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 공동 주최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사천비행장에서 개

최된다.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KF-21-T-50 등 시범비행, 항공기 전시, AR·VR 기반 우주항공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열리는 우주항공방위산업전은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첨단 우주항공·방산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페스티벌은 10월 24일 김해 롯데가든파크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밀양 매운맛축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밀양강변에서 개최한다. 특히 첫날에는 유튜버 썬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매운맛을 즐기는 방문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마산로봇랜드 가을 축제 ‘풀인 펌킨 페스타’는 불꽃쇼(10월 3·10일), EDM 파티, 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남해 설리 스카이워크에서는 전망대 끝 유리바닥 아래로 펼쳐지는 해안 절벽과 바다를 향해 타는 하늘그네를 통해 남해의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경남도는 ‘10월 경남픽’ 7선을 10월 1일부터 공식 유튜브 ‘경남TV’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창원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경상남도

####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

경상남도는 국비 공모 사업과 자체 사업에 총 606억원을 투입해 도내 도시가스 소외지역 6,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새로 공급한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보조사업’에는 산청군·밀양시·통영시가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502억원이 들어가며 3개 시군에 총 53.9km 배관을 설치해 2,69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신안면과 단성면 1,431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이후 신등면 등 1,206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상남면 일원 1,075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광주시

#### 시민의 날 맞아 참여행사 풍성

광주시가 시민의 날을 맞아 책과 첨단기술,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시민 참여 행사를 마련한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3일 광주시 G-스타디움 일원에서 ‘제55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하나된 광주, 내일을 품다’다. 기념식에 앞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구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는 오전부터 시작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G-스타디움 일원에서는 책을 매개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광주시 북페스티벌’이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유진채 기자 yujin@

### 해남군

#### ‘아이 키움수당’ 지급 시작

해남군이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해남아이 키움수당은 2025년 이후 출생아에게 1세부터 7세까지 매월 20만원을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4년 임신·출산가정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출산·양육 지원사업 11종을 통합·개편하고,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기존 현물성 중심으로 분산돼 있던 11개 개별 사업을 일원화해 수당으로 전환하고, 가정의 선택권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충남도, 교부세 보전·기금 배분 확대 촉구

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감소 우려  
충남 교부세 8조5000억원원 전망

충남도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관련해 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기금의 지방 배분 확대 등 지방재정 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 등

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에 대응해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 안정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제외되면 서 지방교부세 산정 재원이 줄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기존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국 107조 6000억여 원, 충남 8조 5000억여 원으로 예상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미래 모색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 개최

포항시는 29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국내외 수소산업 전문가와 기업,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POFC 2026)’을 개최했다.

올해 5회째인 포럼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후원과 주한핀란드대사관 협조로 ‘글로벌 수소파트너십과 연료전지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핀란드 수소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수소연료전지 기술 동향과 발전 전략,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에서 헤르코 플릿 P2X Solutions Oy 대표 겸 핀란드 H2클러스터 회장은 유럽연합(EU)과 핀란드의



박용선 포항시장이 29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열린 ‘2026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수소경제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하루 야발타 20MW 그린수소 상업운전 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전주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총력

대학·유관기관 등 8곳 협약 체결

전주시 등 8개기관 전주교육혁신원 위해 29일 시청3층 시민소통공간에서 전주교육혁신선도지역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주, 교육 혁신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나선다.

전주시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대비해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 손잡고 교육 생태계 고도화에 나섰다. 9월 29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전주 교육의 체계적 혁신을 위한 실질적 연대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선정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전주(전북)=김근호 기자 kmo2455@

## 광명시, 신천~하안~신림선 조속 추진 촉구

시민 1만5990명 서명부 국토부 전달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촉구하는 광명시민 1만5,990명의 서명부가 정부에 전달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9일 시민대표 등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 해박재순 교통물류실장에게서명부를 전달하고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와 서울 서남권을 연결해 교통수요를 분산할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며 “시민 1만6천여 명의 뜻을 정부

가 무겁게 받아들여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을 잇는 총연장 16.4km의 광역철도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광명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이 주요 노선으로 포함된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가칭)’ 추진도 요구하고 있다.

/광명(경기)=김예원 기자 ywon@

### 의령군

#### LA한인축제서 미국 시장 공략

의령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제53회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참가해 미국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의령 지역 농식품 업체 10곳이 참여해 41개 품목을 선보인다. 군은 7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시와 시식, 현장 판매, 현지 수입·유통 바이어 상담을 진행한다. 군은 올해 기존 수출업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신규 업체 참여도 늘렸다. 의령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간편식, 전통식품 등을 현지 소비자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 폭염에 울고 연휴에 웃고… 주요 유통업체 매출 7.7% ↑

오프라인 5.4%, 온라인 9.3% ↑  
폭염 이어지며 소비자 활동 감소  
이른 추석에 대형마트 매출 반등

여름철 최대 성수기를 맞은 편의점의 성장세가 기록적인 폭염에 주춤했다. 외부 활동이 줄면서 방문객이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이른 추석에 따른 선물세트 수요와 홈플러스 영업 재개 영향이 더해지며 5개월 만에 매출이 반등했다. 상반기 가파르게 성장했던 백화점은 두 자릿수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됐다.

30일 산업통상부의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5.4%, 온라인은 9.3% 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이 11.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SSM(5.0%), 대형마트(4.5%), 편의점(0.8%)이 뒤를 이었다.

통상 여름철 대표적인 수혜 채널로 꼽히는 편의점은 폭염의 역풍을 맞았다. 지난해 GS25의 7~8월 매출은 월평균보다 최대 12% 높았고, CU도 지난해 3분기 매출이 1분기보다 21.8% 많았다. 그러나 올해 편의점 매출 증가율은 5월 5.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9%, 6월 5.1%에서 7월 1.1%, 8월 0.8%로 둔화됐다.

올해 8월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평년보다 2.0도 높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8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은 29.1도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8월 2일 경남 양산에서는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다.

산업부는 폭염에 따른 외부 활동 감소로 편의점 구매건수가 줄었지만 구매단가가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는 폭염으로 배달서비스 이용 등이 늘면서 서

비스·기타 매출이 16.9%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매출 증가율은 3월 -15.2%, 4월 -6.6%, 5월 -5.1%, 6월 -10.5%, 7월 -11.2%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8월 4.5%로 플러스 전환했다.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빨라 선물세트 수요가 8월부터 발생하면서 식품 매출이 5.4%, 가전·문화가 17.8% 증가한 영향이다.

홈플러스 영업 재개도 변수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재개장 이후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한화투자증권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고 판촉을 강화했음에도 경쟁 대형마트의 점포당 매출 증가세가 이어진 점에 주목했다. 8월 대형마트 전체 매출은 4.5% 늘었지만 점포당 매출은 20.7% 증가했다.

백화점은 성장세가 둔화됐다. 매출 증가율은 4월 21.7%, 5월 24.5%, 6월 22.2%에서 7월 17.9%, 8월 11.9%로 낮아졌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7~8월 평균 기존점 매출 증가율도 약 13%로 2분기 평균 19.5%보다 6%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명품과 가전의 성장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30% 이상 증가하던 해외유명브랜드 매출 증가율은 8월 15.6%로 낮아졌고 가정용품은 1.2% 감소했다. 반면 패션은 6월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매출은 9.3% 증가했다. 이른 추석에 따른 선물세트 판매로 식품이 12.6% 늘었고 폭염에 따른 배달서비스와 여행·문화상품 수요로 서비스·기타도 16.9% 증가했다. 8월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로 집계됐다.

seo@metroseoul.co.kr



metr

## 홈플러스 “황금연휴, 특가로 즐기세요”

‘맛있는 황금연휴 5일 특가전’ 개최  
한돈 등 4000여종 상품 할인판매

홈플러스가 5일까지 개전절 연휴 5일간 ‘맛있는 황금연휴 5일 특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겹살, 목심, 채소 등 주요 먹거리를 비롯해 연휴 기간 나들이 고객을 위한 간편식과 간식류 등을 할인 판매한다. 막걸리와 생필품 등 총 4000여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10월 1일 한돈데이를 맞아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농협안심한돈 삼겹살·목심을 50% 할인 판매한다. 2~5일에는 한돈 돼지고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며, 한돈 냉동 돼지갈비와 한돈 일품 포크 삼겹살·목심 등을 할인 판매한다. 1~5일에는 호주 청정우 척아이를 멤버특가로 40% 할인한다.

과일과 채소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제주하우스밀감과 네이블·카라카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오렌지를 멤버특가로 50% 할인한다. 1~7일에는 채소 반값 행사를 열고 노타리버섯, 양상추, 청경채, 양파, 알배기, 밤·호박 고구마 등을 멤버특가로 50% 할인한다. 행복대란 30구도 행사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나들이 고객을 위해 1~7일 파이·비스킷 30여 종을 묶음 할인하고,

신라면을 포함한 라면 20여 종은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한다. 스낵 40여 종은 ‘10+5’ 행사를 진행한다.

날짜별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2~5일 심플러스 냉동블루베리를 멤버특가로 판매하고, 심플러스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와 코카콜라·코카콜라 제로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청정원 순창 태양초 고추장은 70% 할인한다. 일부 상품은 수량이 한정되며 온라인 행사 내용은 다를 수 있다.

3~4일에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1+1’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김치 7종, 유부초밥 10종, 치킨·너겟 7종, 두유 9종도 ‘1+1’으로 제공한다.

연휴 기간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델리 상품 행사도 마련했다. 홈플러스 실속 모듬초밥 30입을 멤버특가로 판매하고, 1~5일에는 홈플러스 버팔로왕봉을 멤버특가로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노브랜드 버거 성수점 내 ‘과일 바로 스무디’ 팝업스토어에서 ‘스꾸(스무디 꾸미기)하우스’에서 모델들이 직접 꾸민 즉석 과일 스무디를 소개하고 있다.

### 신세계푸드 ‘스꾸 하우스’ 팝업 운영

신세계푸드는 즉석 스무디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까지 서울 성수동 노브랜드 버거 성수점 내에 ‘스꾸(스무디 꾸미기)하우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일 바로 스무디’의 맛과 비주얼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직접 완성하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신세계푸드 즉석 과일 스무디 브랜드 ‘과일 바로 스무디’는 지난 2월 트레이더스 마곡점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잔을 돌파했으며, 현재 전국 트레이더스 T카페를 비롯해 주요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 버거 매장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스꾸하우스’에서는 1잔당 2900원에 스무디 선택부터 토핑 조합, 컵 꾸미기까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스무디존’에서는 딸기바나나, 방울토마토, 파인애플망고, 트리플베리, 수박딸기 등 5가지 매뉴 가운데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 있다. ‘토피빙’과 ‘셀프 토피빙’에서는 타피오카펄, 화이트펄, 파퓰보바, 그레놀라, 초코쿠키크런치 등 14종의 토피빙과 드리즐을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해 맛과 식감을 더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 롯데유휄드 7개 공장 ‘글로벌 해협’ 인증 취득

롯데유휄드가 국내 7개 공장의 ‘글로벌 해협(Global HACCP)’ 인증을 취득해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을 획득한 생산 시설은 주요 수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영등포, 양산, 평택, 대전, 천안, 김천, 횡성 총 7개 공장이다. 롯데유휄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인프라를 인증받음으로써,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제고했다.

롯데유휄드 관계자는 “당사의 모든 공장은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의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 규격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해협 인증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전 세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신제품

### 농심, 12일 ‘너구링’ 출시

농심이 오는 12일 스낵 신제품 ‘너구링(사진)’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 즐기던 스낵 모디슈머 레시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인기 라면 ‘너구리’와 스낵 ‘양파링’을 결합한 제품으로, 양파링 특유의 짭짤하고 고소한 맛에 얼큰한 너구리의 해산물 풍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농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 즐기며 화제가 된 레시피에서 착안해, 양파링과 너구리의 매력을 한 제품에 담았다”라며 “익숙한 두 제품이 만나 만들어낸 색다른 맛과 재미를 즐겨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CJ유휄케어 맥플랜 뉴트리션 드링크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유휄케어가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CJ바이오사이언스의 연구 역량을 접목해 차별화된 영양설계를 담은 일반식품인 ‘맥플랜 뉴트리션 드링크’ 3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바쁜 현대인들이 한 병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대용량(350ml) 일반 프로틴·식이 섬유 음료다.

기존 영양료로 특유의 텁텁한 맛을 개선하고 대중적인 맛을 구현한 점도 돋보인다.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초코맛, 아몬드맛, 흑임자맛 등 총 3종의 라인업으로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CJ유휄케어 관계자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혁신 제품으로 웰니스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배추 5kg과 김치양념 1.5kg으로 구성해 별도의 재료 준비 부담을 줄였다.

사전예약 접수는 롯데마트 ‘도어드리겠습니다센터’, 롯데슈퍼 ‘안내데스크’ 및 계산대, 온라인 앱 롯데마트 제타에서 가능하다. 사전예약한 절임배추는 11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롯데마트·슈퍼는 2016년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산지 절임배추 시설과 협력해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운영하고 있다. 채소팀 MD(상품기획자)는 예약 접수 기간인 10월 배추 산지를 방문해 원물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11월 이후에는 절임배추 가공센터를 방문해 생산 과정을 검수한다.

/김서현 기자

### 롯데마트·슈퍼, 절임배추 사전예약

7일까지 접수… 6만5000박스 준비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오는 7일까지 1차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해남 절임배추와 괴산 준고랭지 절임배추, 평창 고랭지 절임배추 등을 한정 판매한다.

롯데마트·슈퍼는 올해 절임배추 물량을 전년 대비 20% 늘렸다. 지난 8월 우천으로 가을 배추 산지의 과잉이 일부 지연된 데다 9~10월 고온에 따른 작황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번 1차 예약 판매 물량으로 총 6만 5000박스를 준비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1차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종료한 이후에도 12월 15일까지 사전예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치 양념과 알타리, 갓김치 등 주요 김장 재료도 사전예약으로 선보인다. 멸치액젓으로 감칠맛을 더한 전라도식 김치양념과 새우젓을 사용한 경기도식 김치양념, 절임알타리와 갓김치 등을 판매한다.

소규모 가구를 위한 ‘해남 절임배추 간편 KIT(6.5kg)’도 선보인다. 해남 절임



# “얼굴 넘어 두피로”… K-뷰티, ‘헤어케어’ 경쟁 불 붙었다

코스맥스, AI 탈모 예측 모델 개발  
다인종 두피 분석·특허 37건 확보  
이미인, 탈모 샴푸·앰플 개발 속도  
LG생건, 북미서 닥터그루트 입증

K뷰티 산업의 성장 축이 ‘얼굴’에서 ‘두피와 모발’로 이동한다. 샴푸, 컨디셔너 등 기초 제품에 인공지능 진단, 바이오 신소재, 초개인화 처방이 결합하면서 고기능성 헤어케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들이 스킨케어 연구개발(R&D) 역량을 두피로 확장하며 기술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뷰티 대기업들도 헤어케어 부문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인공지능과 생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시장을 공략한다. 특히 연구 범위를 해외로 넓혀 글로벌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코스맥스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국가 건강검진 빅데이터 약 2200만 건을 학습시켜 ‘비침습적 원형탈모’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마쳤다. 혈압, 간 수치 등 생리적 지표와 사회심리적·환경적 변수 등 33개 지표를 중



지난 9월 24~27일 멕시코에서 열린 ‘2026 K-엑스포’에서도 닥터그루트는 브랜드 부스를 운영했다.

/LG생활건강

합해 개인별 탈모 위험도를 파악하고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유럽·아프리카계 387명에서 다인종 두피 지질체 분석해 두피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생물학적 특성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3년 헤어케어 부문에서 출원한 특허 수만 37건에 이른다.

코스맥스는 이러한 R&D 행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헤어케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5% 급증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글로벌 헤어케어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며 “기술 조격차가 매출 조격차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팩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쌓아온 이미인 역시 헤어케어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섰다. 연구소 내 별도 헤어케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와 고농축 헤어 앰플을 개발하고 임상 및 단계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젤 제형, 비건 성분 등으로 소재 차별화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뷰티 브랜드 기업들 역시 헤어케어를 미래 성장 카드로 꺼내 들었다. LG생활건강은 북미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고급 두피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 제품력을 입증했다. 최근 미국 최고 권위의 뷰티 시상식 ‘2026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에서 브랜드 주력 제품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 헤어 티크닝 샴푸 및 컨디셔너가 베스트 파인 헤어 샴푸&컨디셔너 부문을 수상했다.

브랜드 최초로 얼루어 어워드를 수상함과 동시에 북미 시장에서는 ‘두피 최우선’

포지셔닝을 확립했다. 해당 제품은 따로 드라이를 하지 않고 자연 건조만 한 상태에서도 모발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닥터그루트는 현재 아마존, 틱톡샵, 세포라 등 북미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브랜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헤어케어를 ‘뉴뷰티’로 지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9월 11일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개최한 ‘2026 인베스터 데이’에서 러, 미장센, 라보에이지, 아윤체 등 멀티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오는 2029년 7월~2030년 6월까지 헤어케어 매출 1조원, 글로벌 매출 비중 6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장센 ‘퍼펙트세럼’ 등이 미국 아마존 헤어스타일링 오일 카테고리 1위에 오르는 등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중국·일본·브라질 등 글로벌 대형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인디 뷰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두피도 ‘얼굴 피부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스킨케어 수준의 고도화된 R&D 기술이 헤어 제품에도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CJ올리브영, 피트니스 연계 웰니스 강화

F45와 운동·뷰티 연계 마케팅 전개  
체험권 등 혜택으로 온오프라인 연결

CJ올리브영이 실제 운동 현장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며 웰니스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와 협력해 오프라인 운동 프로그램과 웰니스 및 남성뷰티 브랜드를 연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휴 행사는 10월 한 달간 전개된다.

올리브영은 기존 바다케어는 물론, 스포츠 뉴트리션 등 운동 관련도가 높은 부문에서 소비자 접점을 늘리고 ‘고부가가

치 라이프스타일 창구’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제휴 기간 올리브영 회원인 ‘올리브 멤버스’에게는 약 3만5000원 상당의 F45(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1회 체험권이 지급된다.

그린·블랙·골드 등급 올리브 멤버스는 약 4만원 상당의 FS8(필라테스·토닝·요가 결합 운동) 1회 체험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피트니스 공간을 웰니스 브랜드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교차 마케팅도 펼친다. 전국 64개 F45 지점 방문 고객에게 셀렉스 프로핏 단백질 셰이크, 스포시스 에너지

젤 등을 선착순 증정한다. 아울러 F45 회원에게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의 남성·웰니스 기획전 15% 할인 쿠폰과 스포츠 뉴트리션 3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온라인 구매로 전환되도록 설계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운동과 식단, 일상 속 관리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고객이 운동과 웰니스 상품을 통합적으로 체감하며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SK케미칼, MSCI ESG 최고등급 획득

국내 화학사 중 유일하게 AAA

SK케미칼이 글로벌 기관투자의 핵심 투자 지표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SK케미칼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로부터 최고 등급 ‘AA A’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7개 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에 진입했고 MSCI가 분류한 화학 산업군 내 국내 기업 중 AA를 받은 곳은 SK케미칼이 유일하다.

SK케미칼은 지난 2021년 BBB 등급에 머물렀으나, 2022년 A, 2023년 AA를 거쳐 올해 AAA까지 5년 만에 빠른 속도로

등급을 끌어올렸다.

SK케미칼은 ESG 경영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입증하게 됐다.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이러한 ESG 평가를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때 활용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중장기 탄소감축 로드맵에 기반한 탈탄소 프로그램 추진, 전사업장 ISO 14001 기반 환경경영 체계 수립, 수자원 물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환경 경영을 강화해 왔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부문도 지속 개선했다.

/이청하 기자

## 광동제약, 준법경영 내실화… 부패 리스크 사전 차단

컴플라이언스워 워크숍 개최  
CP 리스크 대응·내부심사 교육

광동제약은 전사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내부심사 조직인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사내 각 사업부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CP 리스크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관리자 격려사를 시작으로 ISO 내부심사원 교육과 실제 점검 상황을 가정한 내부심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모의 심사를 통해 부서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부패 리스크를 사



광동제약이 개최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워크숍에서 박상영 대표이사(앞줄 왼쪽 세번째)와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부문별 준법 활동 현황을 공유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내부심사 실무 역량을 점검하고 전사적 자율준수 체계를 협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과 교육을 지속해 사내 부패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준법경영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속가능경영 기반 확립을 위해 준법·윤리경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기존 CP실을 부문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하고 감사 및 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국제약, ‘DK 라이프 스토어’ 전국 확대

11월까지 백화점 11곳서 운영

동국제약의 웰니스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나만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탐색하는 체험형 공간이 전국 주요 백화점으로 무대를 넓힌다.

동국제약은 오는 11월까지 총 11개 백화점에서 ‘DK 라이프 스토어’를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6곳에 더해 롯데백화점 건대점, 대구신세계, 현대아울렛 가든파라드점 등 5개 지점에서 행사를 추가한다.

동국제약은 지난 6월 잠실 롯데월드몰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천호점·미아점 등 전국에서 DK 라이프 스토어를 공개했다. 각 지역에서 소비자 접점을 확보해 현장 누적 판매액은 2억원에 달했다.

현장에서 일상 속 자기관리에 관심이 높은 고객들을 위해 전문적인 라이프스타



‘DK 라이프 스토어’

/동국제약

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은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 다리 건강 브랜드 ‘센시안’ 등 다양한 브랜드를 내놓는다.

/이청하 기자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뮤직 드라마

# 망원동 브라운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예매하기

이번엔 진짜 잘될 거야!

아구아 해장국

타격태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미나아트홀





#### 롯데바이오로직스, 한마음공원서 플로깅 봉사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9일 인천 선학동 한마음공원 일대에서 임직원 봉사단 'L B:하트'가 플로깅을 실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인천 한마음공원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봉사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 한국타이어, IDEA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생산 부산물을 재활용한 제품과 미래 이동 기술로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2026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리무브'와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휠봇2'가 각각 본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구(球)형 모듈러 로봇틱 휠 시스템 '휠봇2(WheelBot2)',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리무브(re:move)'의 성과물 중 '업사이클 가구' /한국타이어



#### 파라타항공, 中 선전 노선 신설… 내달 9일 운항

파라타항공이 중국 첨단산업 도시 선전으로 하늘길을 뚫는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갖춘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기업 출장객과 자유여행객 수요를 함께 공략한다. 파라타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과 중국 선전 바오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정기편을 11월 9일부터 운항한다고 30일 밝혔다. 파라타항공 항공기. /파라타항공



#### 한샘, KCSI 조사 가정용·부엌 가구 1위 '2관왕'

한샘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가정용 가구와 부엌 가구 부문 1위를 기록해 2관왕에 올랐다. 30일 한샘에 따르면 부엌 가구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업계 내 독보적인 입지를 증명했다. 프리미엄 키친 라인 '키친바호'와 시그니처 키친 라인 '유로키친' 등 부엌 가구의 뛰어난 품질과 정밀한 설계 능력을 인정받아 통산 18회 1위를 기록했다. /한샘

## 에이피알, 24억 상당 현물 기부

에이피알이 소외된 이웃의 일상을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4억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약 계층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부 물품에는 자사 의류 제품 등이 더해져 실용성을 갖췄다.

우선 국내 여성 이용 사회복지시설과 종합복지관을 통해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에 전달된다. 해외 역시 몽골, 말라위 등 구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나눔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현대차 정몽구 재단, 국내 기후테크 '또 진출' 가교 역할

## 기후테크 글로벌 피칭 세션 개최 말레이서 5개 연구팀 기술 발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국내 기후테크 연구팀과 해외 투자자·기업을 연결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RMI·Third Derivative(D3)와 공동으로 기후테크 피칭 세션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기후테크 행사 '에너지 테크 서밋 아시아 2026'에서 열린 이번 세션에는 그린 소사이어티 연구팀 5개 팀과 ITAP 스타트업 5개사가 참여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아시아 기후기술 스타트업 글로벌 파트너십'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ETS Asia 피칭세션 단체 사진.

/현대차정몽구재단

그린 소사이어티 연구팀은 해양 탄소포집과 이끼 기반 토양 복원, 태양광 인버터, 수소 생산용 중공사막, 운송에너지 변환 기술을 선보였다. 사전 컨설팅을 거쳐 기술의 차별성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현지 투자자·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실증 협력과 투자 유치 가능성을 논의했다.

재단은 연구팀별 후속 미팅을 지원하고 RMI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실증과 수요처 발굴, 투자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이번 피칭 세션은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그린 소사이어티 연구팀의 기술을 글로벌 시

장과 투자 네트워크에 연결한 자리"라며 "기후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검증되고 투자와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 삼성전자, 고객만족도 9개 부문 1위

TV·휴대폰 29년 연속 정상  
생활가전도 6개 부문 1위

삼성전자가 가전과 모바일에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능을 확대하며 고객만족도 최다 부문 수상 기록을 25년째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에서 9개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은 122개 산업군, 455개 기업이다.

조명호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KCSI 최다1위는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제품 기술력과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말했다.

KCSI는 KMAC이 1992년 12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객만족도 조사다. 제품 성능과 서비스 등 이용 경험을 평가하는 요소종합만족도에 50%, 전반적 만족도에 30%, 재구매·이용 의향에 20%의 비중을 둔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조사한 뒤 6점과 7점을 준 응답자의 비율을 지수화한다.

삼성전자의 부문별 기록을 보면 TV와 휴대폰이 각각 29년, PC가 2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생활가전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8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냉장고와 세탁기가 각각 17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김치냉장고는 16년, 에어컨은 14년째 1위를 유지했으며 무선스틱청소기와 건조기도 각각 6년,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올해 TV와 모바일 제품에 적용한 AI 기능을 주요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TV의 '비전 AI 컴패니언(Vision AI Companion)'은 시청 중인 콘텐츠와 질문의 맥락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휴대폰에는 일상과 관심사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 브리프(Now Brief)'와 일정 등록 등을 안내하는 '나우 넛지(Now Nudge)'를 적용했다. PC의 경우 스마트폰·태블릿과의 연결성과 긴 배터리 사용시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인사 ◆한국신용평가 ◇승진△ 신용리스크모니터링본부장 위지원

◆머니투데이방송(MTN) △전남광주 취재본부 국장 이용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김성근 △중점조사기획단장 최장관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의정관 하인호 ◇국장급 승진△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이윤경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채경아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원면직 유정기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이형민 △감염병관리과장 권근용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국장 이명선

◆대전 중구 ◇4급 전보△기본사회기

획국장 윤영건 △돌봄복지국장 이연숙(조직개편) ◇4급 승진△문화경제국장 문화선

부음 ▲문오순(향년 82세)씨 별세, 이경희씨 모친상, 차상근(메트로신문 산업부 부국장)씨 장모상, 차혁우·차인서·차혜원씨 외조모상 = 29일 오후 8시, 부산 괴정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0월 1일 오전 10시, 장지 양산 천불사. ☎ 051-293-4382

▲허창일(향년 92세)씨 별세, 함정옥씨 배우자상, 허형범·경주·경희·경미씨 부친상, 이준화·류남현(팜센사이언스 부회장)·김홍식씨 빙부상, 한소영씨 시부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월 2일 오전 7시 15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6915

## 한진, 정책기획담당 부사장직 신설

최종석 전 안전보안실장 선임  
공직·언론·기업 현장 두루 경험

한진이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사장직을 신설하고 최종석 전 안전보안실장(CSO)을 신임 정책기획담당 부사장(사진)으로 선임했다.

30일 한진에 따르면 최 부사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고용노동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고용노동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을 거쳐 한진의 안전보안실장(CSO)으로 재직하며 사내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책기획담당을 겸직하며 회사의 대내외 경영 전략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최 부사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대외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직과 기업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 체계 최적화 및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한진의 ESG 경영 내실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최 부사장은 공직과 언론, 기업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정책과 경영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부사장직 신설·선임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적인 안전·노사문화 확립 등 ESG 경영을 심화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아시아나, 국제선 마일리지 특별기 운영

일본·중국·동남아 5개 노선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마일리지 소비 촉진을 위해 일본·중국·동남아 5개 노선에 국제선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항한다.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번 국제선 마일리지 특별기는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일본 노선(도쿄·오사카) 26편,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중국 노선(베이징) 26편,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남아 노선(하노이·마닐라) 21편, 총 73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항공권 예약은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잔여 좌석 전체를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상황에 따라 유상 항공권으로도 구매 가능해 고객 선호에 따라 마일리지 항공권과 유상 항공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마일리지 항공권은 편도 기준으로 일본·중국 노선 이코노미 클래스 1만 5000마일·비즈니스 클래스 2만 2500마일, 동남아 노선 이코노미 클래스 2만 마일·비즈니스 클래스 3만 마일이 공제된다. 단 승시기간에는 바수기 대비 50%가 추가 공제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확정됐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통합 이후에도 보너스 좌석 공급 비중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아파트 유토피아



진성오 교수  
심리카페

집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공간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물리적 피난처이자,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심리적 안식처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인간이 특정 장소에 대해 갖는 긍정적 유대감을 '토폠피리아(Topophilia)'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토포는 일종의 지형이나 장소 혹은 모양을 의미하고, 필리아는 사랑을 의미한다. '장소에 대한 사랑'쯤 되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간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집', 특히 '아파트'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토포필리아를 넘어선다. 그것은 생존의 증표이자 성공의 척도이며, 나아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호'로 작동한다.

우리는 집에 대한 열망이 때로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말지 않은 신문과 방송에서 목도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원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특정 지역의, 특정 브랜드의 아파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대변하는 일종의 페르

조나', 즉 사회적 가면이 된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말한 페르조나는 본래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지만, 이 아파트라는 페르조나는 때로 개인의 내면을 잠식한다. '어디에 사느냐'는 질문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과 동일시되면서, 원하는 집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깊은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 심지어는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집은 더 이상 안식의 공간이 아니라, 끊임 없는 비교와 경쟁을 유발하는 불안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다. 외국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임상으로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남과 강북은 그냥 장소가 아닌 한국 계급의 '토포하이아라키'이다.

강남의 어떤 지역에 사는 고3 학생을 상담하면서, 강남을 벗어나는 것을 계급의 저하로 표현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장한 그 청소년이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서울의 어느 명문대에 입학하고 나서 자신이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알려주는 과점을 입는다는 현실은 임상으로 서 뭐가 알 수 없지만 알고 싶지 않은 젊은 자기 정체감의 모델을 보는 듯 하여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한국인의 유별난 아파트 사랑은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으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을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의 집단적 경험은 '안전'과 '안정'에 대한 강력한 무의식적 갈망을 낳았다. 반듯하게 구획된 대단지 아파트는 이러한 집단적 불안을 해소해 줄 가장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상징물이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러한 집단 심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재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는 생존자들에게 마지막 유토피아이지만, 그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디스토피아로 변모한다. 이는 '우리 아파트'라는 경계가 어떻게 외부로 향한 혐오와 내부를 향한 맹목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맹목은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가 유토피아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본래 집은 가면을 벗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밖에서는 과장이고 선생님이자라도, 집에서까지 그 페르조나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파트가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집 안에서조차 온전히 쉬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안전한 휴식을 얻으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성벽의 높이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한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 꿈의 집



기지수첩  
성채리  
(건설부동산부)

기안84가 또 이상한 집을 만들었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대환장 기안장 시즌2'의 숙소다. 현관 문고리 위치는 배구선수였던 김연경의 키보다 높고, 부엌 싱크대는 욕조로 변한다. 겉보기엔 평범한 자취방인데 집안의 모든 것을 키웠다. 기안은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더 큰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전쟁하듯 산다며 말 그대로 '큰 집'을 준비했다.

언젠가부터 '중소형이 인기'라는 기사가 많아졌다. 분양 현장에서조차 청약 결과에서도 국민평형으로 통하는 전용 84㎡보다 작은 주

택형에 관심이 쏠렸다. 작은 집이 좋아진 건 아니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도 막혀 남은 선택지로 향했을 뿐이다. 8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287만원이다. 1년 전보다 34.2% 올랐다.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드는 현상이 '중소형 선호'로 읽혔다.

대부분의 청년에게는 그 작은 신축도 먼 얘기다. 문제는 전용 59㎡나 84㎡가 아니다. 당장 5평에서 7평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간절하다.

비싼 월세에도 좁고 불편한 방을 견디게 하는 건 언젠가 다음 집으로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점점 아득해진다. 지난 8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67만원이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2228만원으로 한 달 새 293만원 올랐다.

지난달 서울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용산구였다. 평균 월세가 116만원에 이른다. 직장 때문에 용산에 사는 한 친구는 가끔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한다.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고시원과 비슷한 크기의 원룸을 견디는 경우도 있다. 월세를 더 내고 방을 넓히려 면 저축할 돈이 줄어든다. 전세보증금을 모으려면 좁은 방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한다. 당장의 숨통을 틔우는 일과 다음 집을 준비하는 일이 서로 발목을 잡는다.

기안장의 설계 철학을 들으며 어릴적 꿈꾸던 집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살고 싶은 집'을 물으면 스케치북에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그리는 했다.

누군가에게 꿈의 집은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다. 누군가에게는 '내 집'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 한두 명을 더 들일 수 있는, 지금보다 한두 평 넓은 방이다.

/cr5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일 (음 8월 2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60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72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84년생 새로운 일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49년생 이익이 넘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1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73년생 용돈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년생 고민이 있으면 혼자는 안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50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년생 업무처리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74년생 낯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86년생 흥정을 하면 잘 성사됩니다.



51년생 대하기 거북하던 상대와 잘 접목됩니다. 63년생 주위 상황이 호전됩니다. 7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일거리가 밀려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52년생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4년생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76년생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88년생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꼭 잡으세요.



53년생 베풀면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5년생 데이트 신청뿐 아니라 프로포즈 받기도 합니다. 77년생 믿었던 사람이나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8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54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66년생 돈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78년생 웬만하면 만족하고 진행하세요. 90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됩니다.



55년생 여행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67년생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79년생 근심을 풀어버리세요. 91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56년생 남들에게 배워서기 바랍니다. 68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80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92년생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바로 복이 되어 옵니다.



57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69년생 사랑은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81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랍니다. 93년생 활기차고 평온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58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70년생 부부의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입니다. 82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94년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59년생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71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세요. 83년생 동서 양방에 일을 구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95년생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겠습니다.



## 김상희의四季

재물을 쌓으려면

언제 돈을 벌고 얼마나 재물을 쌓을 수 있을지 누구나 궁금해한다. 재물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재성이다.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과 관련이 있는 기운이다. 하지만 사주에 재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모두 갖춰야 재물이 쌓이기 때문이다. 재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다. 어떤 사람은 조직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자리를 얻으면서 재물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과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돈을 번다. 재물복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흐름이 있다. 관인상생과 식상생재가 그러하다. 재물을 끌어오는 좋은 기운이라는 것은 같지만, 돈을 버는 방식과 지키는 방식은 다르다. 관인상생은 큰돈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흐름은 아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자리가 올라가고 재물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보인다.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봉이 켜중 뛰어오른다. 업계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유명해진다. 결국 그런 명성을 타고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억지로 재물을 쫓아다니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식상생재는 자기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시장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재물을 얻는다. 그 방법은 자기만의 뛰어난 기술력을 서비스하거나 달변의 화술로 자기를 표출해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남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세일즈 능력이 좋으므로 활동을 늘리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재물로 연결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팔자에 좋은 재물복이 있다고 보이는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운세의 흐름이 큰 영향을 미친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6005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2109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국·영·수 1등급 비율 10% 이상 격차… ‘사탐런’ 현상 뚜렷

## 수능 9월 모의평가 분석

국어, 1등급 5.38%… 변별력 상승  
수학, 최고점수·1등급 컷 감소  
영어, 역대 세번째로 쉽게 출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국어가 수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변별력을 보인 가운데 영어 1등급 비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 응시자가 늘고 과학탐구 응시자는 줄어드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뚜렷했다. 입시 업계는 수능에서도 국어·수학의 변별력 있는 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9월 모평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 1등급 구분점수(컷)는 131점이었다. 1등급 인원은 1만6363명으로 전체의 4.16%였다. 최고점자는 75명이다.

국어는 6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6월 모평은 최고점 132점, 1등급 컷 128



점, 1등급 비율 5.38%(2만2018명)였다. 9월에는 최고점이 12점, 1등급 컷이 3점 올랐고 1등급 비율은 1.22%포인트 낮아졌다. 진학사는 이번 모평에서 국어의 상위권 변별력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7점, 1등급 컷은 128점이었다. 1등급 인원은 2만1666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5.55%를 차지했다. 최고점자는 2741명이다.

## 2027 수능 9월 모의평가 등급별 점수

| 등급 | 국어영역 |       | 수학영역 |       | 영어영역 |       |
|----|------|-------|------|-------|------|-------|
|    | 표준점수 | 비율(%) | 표준점수 | 비율(%) | 원점수  | 비율(%) |
| ①  | 131  | 4.16  | 128  | 5.55  | 90   | 15.54 |
| ②  | 124  | 7.93  | 122  | 8.23  | 80   | 22.58 |
| ③  | 117  | 11.59 | 118  | 9.97  | 70   | 23.48 |
| ④  | 108  | 16.85 | 111  | 16.48 | 60   | 15.18 |
| ⑤  | 96   | 20.6  | 96   | 20.39 | 50   | 7.41  |
| ⑥  | 83   | 16.68 | 78   | 16.87 | 40   | 4.54  |
| ⑦  | 71   | 11.33 | 72   | 13.14 | 30   | 3.66  |
| ⑧  | 65   | 7.49  | 69   | 5.66  | 20   | 5.39  |
| ⑨  | 65미만 | 3.37  | 69미만 | 3.72  | 20미만 | 2.23  |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고점은 6월 모평(138점)보다 1점, 지난해 9월 모평(140점)보다 3점, 지난해 수능(139점)보다 2점 낮아졌다. 1등급 컷도 6월(129점)과 지난해 9월(131점)보다 각각 1점, 3점 낮다.

반면 1등급 비율은 6월(4.83%·1만9629명)과 지난해 9월(4.24%·1만7065명)보다 각각 0.72%포인트, 1.31%포인트 높아졌다.

종로학원은 국어가 수학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됐으며, 국·수 난이도 격차가 수능 점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영어 1등급 인원은 6만1457명으로 전체의 15.54%로, 지난해 9월 모평(4.50%)보다 11.04%포인트 높았다. 이번 시험은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6월·9월 모평과 수능을 통틀어 세 번

째로 쉽게 출제됐다.

1등급 인원은 지난해 9월 모평(1만8373명)보다 4만3084명 늘었고, 올해 6월 모평(1만6979명)보다 3.6배에 많았다. 9월 모평만 놓고 보면 2023학년도(15.97%)에 이어 1등급 비율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수능에서는 영어가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탐구는 응시 규모가 엇갈렸다. 사회탐구 9개 과목의 응시 인원(과목별 합산)은 60만6966명으로 지난해 9월 모평보다 5만9292명(10.8%) 늘었고, 과학탐구 8개 과목은 17만893명으로 8만4301명(33.0%) 줄었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시험 난도보다 수험생의 탐구 선택 자체가 더 눈에 띈다”며 이런 흐름이 수능까지 이어지면 자연계 최상위권 모집 단위의 지원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ystal@metroseoul.co.kr



## 고려대·연세대, 내일 ‘61주년 정기전’ 개최

잠실야구장 개막식… 양일간 진행

고려대와 연세대가 서울 잠실과 목동 일대에서 61주년 정기전을 개최한다.

고려대는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2026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고려대가 주최하는 올해 연고전은 2일 오전 10시 잠실야구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오전 1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고, 오후 3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농구 경기가 이어진다. 오후 5시에는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진행된다.

3일에는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이어진다. 오전 11시 럭비에 이어 오후 2시 축구 경기를 끝으로 정기전 일정이 마무리된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은 1920년대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스포츠 교류에서 시작됐다. 1925년 정구대



2025 정기전 아이스하키 경기 현장. /고려대

회와 1927년 보성전문-연희전문 축구 경기를 계기로 교류가 이어졌고, 1965년부터 야구·농구·빙구·럭비·축구 5개 종목을 겨루는 현재의 정기전 형태가 자리 잡았다.

올해 정기전은 지난해 고려대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뒤 열리는 대회이기도 하다. 2024년까지 20승 11무 20패로 동물이던 역대 종합 성적은 지난해 고려대 우승으로 고려대 기준 21승 11무 20패가 됐다.

/김수정 기자

## 서울교육청, 내년 공립중등교원 694명 선발

전년도 대비 선발인원 306명 ↓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물품 지정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694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1000명보다 306명 줄어드는 규모로, 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900명에서 584명으로 316명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공립에서는 중등교사 584명을 비롯해 중등 특수교사 26명, 보건교사 23명, 영양교사 32명, 사서교사 6명, 전문상담교사 23명 등 24개 과목에서 694명을 뽑는다.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787명에서 2025학년도 914명, 2026학년도 1000명으로 증

가했지만, 2027학년도에는 694명으로 감소했다. 교육청은 교원의 정원 변동과 정년·명예퇴직, 휴직 등을 반영해 선발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85명, 수학 81명, 영어 62명, 체육 49명, 일반사회와 역사 각각 39명, 정보·컴퓨터 26명, 생물 29명 등의 교원이 배정됐다.

국립학교는 3개 학교로부터 총 10명을 위탁받았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는 국어교사 2명, 서울대학교와 한국외국대학교는 중등 특수교사를 각각 4명씩 선발한다.

사립학교는 76개 법인, 109개교가 1차 시험을 서울시교육청에 위탁하며, 임용 규모는 총 201명이다. 중등교사 176명을 비롯해 중등 특수교사 9명, 보건교사 6명, 영양교사 1명, 사서교사 5명, 전문상담교사

4명 등 24개 과목에서 모집한다. 특히 공립에서 선발하지 않는 경영·금융 과목 교사 2명, 건설 과목 교사 1명도 뽑는다.

올해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별도 지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도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최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안경을 금지 물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접수는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11월 28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12월 29일 발표한다.

사립학교 1차 시험은 공립과 같은 날 치르며, 법인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3~5배 수를 1차 합격자로 결정한다.

/김수정 기자

## 교육부, 2029년 TOPIK 전면 개편… ‘AI·디지털’ 담는다

(한국어능력시험)

2030년 지원자 100만명 확보 목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2029년부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문제 출제와 채점에 AI를 활용하고,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TOPIK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개편은 평가 체계를 한국어교육 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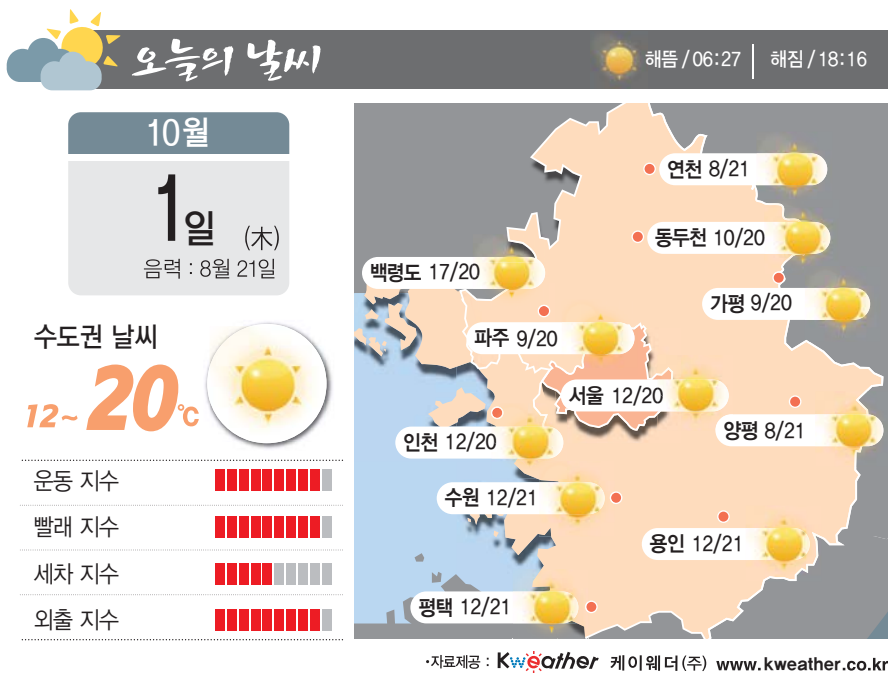
기술 변화에 맞게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출제 체계를 개편하고, 응시 수요에 비해 시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으로 ‘TOPIK 개편위원회’도 출범한다. 위원회는 한국어교육, 측정·평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이들은 ▲중·고급 단계 통합 또는 분리 방안 ▲쓰기·말하기 평가 방안 ▲TOPIK PBT-IBT 평가 동등화 방안 ▲청소년용 TOPIK 개발 등을 검토한다.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는 ‘TOPIK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반면 인식과 시선 추적 등을 활용한 AI 감독 시스템을 적용하며, 유학이나 체류 등 행정절차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등급부터 시행해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TOPIK 지원자 100만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의 종이 기반 시험과 IBT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디지털 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 ▲ 사우디군 예멘 공습 하루새 35차례… 최근 누적 1158회
- ▲ 美 ‘해군 드론 사령부’ 발족… 대만해협 ‘지옥도’ 작전 영향 관심



- ▲ JP모건 다이먼 “유럽 개혁하면 美와 대규모 무역협정…韓도 참여 가능”
- ▲ 中, 국경절 앞두고 인민영웅 헌화식… 시진핑, 기념비 참배

/사진 뉴스

- ▲ 李대통령, ‘대중 관계 중요’ 언급에… 中전문가 “실용외교 원원 결과”
- ▲ 12년만 보수계 도쿄키나와지사 취임… 日정부 “협력할 것”





폭염에 울고  
연휴에 웃고  
유통업 매출 7.7%↑  
니

metro®

Life

K-뷰티  
헤어케어 경쟁  
불 붙었다  
L2



# 바다 건너서도 ‘바삭’... 한국밥상 넘어 세계 입맛 낚다

김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이다. 특히 조미김은 바삭한 식감과 짭조름한 풍미로 남녀노소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지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내 조미김 시장에서 동원F&B의 양반김은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다. 198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누적 판매량만 전장김 기준 120억 장에 달하는 양반김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집밥’이다. 그리고 출시 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로 도약한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동원F&B ‘양반김’

#### ◆김 맛은 원초에서 나온다

동원이 조미김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 변화가 가속화되던 1985년 말이었다. 동원은 조미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견하고 원초김 수매에 나섰고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맛김사업소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했다. 이듬해인 1986년 4월, 계열사인 동원광학 내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마침내 첫 제품을 생산했다. 한편 전국 단위 현상공모를 실시해 한국적이고 친근한 브랜드명인 ‘양반김’을 선정하며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기도 했다.

당시 조미김 시장에는 동원을 포함해 무려 6개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했다. 후발주자였던 동원은 ‘품질 절대주의’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일본에서 최신 가공 기계를 도입하고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했다.

동원의 가장 큰 무기는 원초다. 조미김이라도 맛과 향은 결국 원료 김, 원초가 좌우한다는 판단으로 품질 좋은 원초 구매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늘어나는 수요와 품질 개선을 위해 1986년 11월 경기도 능곡에 3000㎡ 규모의 최신형 자동생산라인을 신설했으나 해당 지역이 정부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후 동원은 1992년 4월 조미김 생산 시설을 청주공장으로 전격 이전하고 현재까지 주력 생산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 ◆바삭함 지키고 환경 살린다

양반김의 차별화된 품질은 원초 관리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구축됐다. 동원은 김 업계에서 유일하게 ‘원초감별사’ 제도를 도입해 왔다. 원초감별사들은 김 포자를 뿌리는 시기부터 수확기까지 단계별로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수확기가 되면 일일이 전국 산지를 돌며 원초의 성장과 품질을 분석하고 직접 수매를 진행한다. 최고 수준의 원초만을 선별해 제품화하는 시스템이 양반김의 일정하고 깊은 풍미를 구현하는 비결이다.

포장 기술의 혁신 역시 양반김이 선도했다. 동원은 조미김 업계 최초로 ‘알루미늄 포장지’를 적용했다. 산소와 빛의 투과를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김에 발라진 기름의 산화를 막고 오랫동안 바삭함과 신선함을 유지했다.

동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가치 소비’ 흐름에도 앞장섰다. 지난 2020년 조미김 업계 최초로 플라스틱 용기를 완전히 없앤 ‘에코패키지’를 선보였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김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쓰이던 트레이 플라스틱을 제거함으로써 연간 약 3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감했다.

#### ◆세게로 뻗어나가는 K김

동원은 양반김 출시 4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파격적인 기술 혁신을 단행했다. 제품 내부에 ‘질소충전공법’을 전격 활용하고 있다. 질소충전공법은 포장 내부의 산소를 최소화하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질소를 채워 넣는 기술이다. 기름의 산화 반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 공법은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 환경적 가치가 크다. 질소충전만으로도 방습제(실리카겔)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바삭



한국인 밥상서 빠지지 않는 ‘조미김’  
1986년, 고품질 앞세워 첫 제품 생산  
누적 120억장 판매, 조미김시장 ‘1위’

원초감별사 제도 도입... 깊은 풍미 구현  
알루미늄 포장지로 바삭·신선함 유지  
질소충전공법으로 글로벌 진출 길 열어  
방습제 없이 바삭함 유지... 환경보호도

韓 전통음식 재해석한 ‘김부각’도 인기  
외국인 관광객 필수 기념품으로 자리잡아



함을 유지할 수 있어 연간 약 300톤에 달하는 실리카겔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질소충전공법은 양반김의 글로벌 진출 길을 열고 있다. 해외 수출 시 긴 물류 이동 기간 동안 김이 눅눅해지거나 기름 냄새가 나는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기 때문이다. 수출용 제품에는 질소충전공법과 함께 실리카겔을 동봉해 품질 유지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나 늘렸다. 이제 지구 반대편의 소비자들도 한국에서 막 생산된 듯한 바삭한 양반김을 맛볼 수 있다.

#### ◆글로벌 사랑받는 전통 김

동원은 양반김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스낵 영역에서도 입지를 다졌다. ‘양반 김부각’의 경우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김에 찹쌀 풀을 발라 말린 뒤 바삭하게 튀겨낸 김부각은 아이들의 영양간식으로, 어른들의 안주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현재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 30여 개 국가로 진출해 있으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구매 기념품이 됐다. 1985년 작은 맛김사업소에서 시작한 동원의 도전은 계속되며 4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인의 밥상 밖 전 세계인의 식탁을 매료시키는 메가 히트 스토리를 쓰고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소비자들이 보내준 성원 덕분에 양반김이 대한민국 1등 조미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이번 질소충전공법 도입을 계기로 국내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양반김을 전 세계인이 즐기는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페이커 출격한 한국 LoL, 3전 전승으로 준결승행 /사진 뉴시스  
▲“1조5000억원 조작”...EPL 맨시티, 재정 규정 어겨 퇴출 가능성 거론

▲‘손흥민 소속팀’ LAFC, 성적 부진으로 도스 산토스 감독 경질  
▲이민성호, 중국과 4강전에 이영준·엄지성·배준호 선발 출격

▲여자축구 한일전 악천후에 흥행 실패...5만석 구장에 998명 입장  
▲AG 변수에도 순위 변동 無...홍련왕·다승왕, 타이틀 경쟁 재점화



SAMSUNG

신혼의 시작, 특별한 혜택

삼성 AI 구독

페스티벌

2026. 9. 28 ~ 10. 31

구독에 블루패스 를 더하다



행복한 신혼, 삼성 AI 구독과 함께하세요

구독 혜택 최대

20%

구독 시, 할인·포인트 등 최대 20% 혜택 증정

- 최대 20% 구독 혜택은 단품 할인 5%, 선납 할인 최대 5%, 다품목 할인(신규 구독 고객)  
최대 5% 및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 최대 약 5% 합산 기준

\* 최대 20% 구독 혜택은 구독 판매처에 따라 상이함

\* 단, 기업 고객에게는 총 구독료의 최대 20% 할인 혜택 증정(일부 품목 한정)

구독료 지원 최대

6개월

상당

추천 모델 구독 시

최대 6개월 상당 멤버십 포인트 추가 증정

\* 단,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태블릿(일부 모델 대상)

추천 모델 구독 시에는 3개월 구독료 상당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증정

\* 단, 기업 고객에게는 추천 모델 구독 시 총 구독료의 5% 할인 혜택 증정

다품목 혜택 최대

600만

상당

일시불 구매·구독 시 품목 수에 따라

최대 600만 상당 멤버십 포인트 추가 증정

- 최대 22개 품목을 일시불·구독 결합으로 구매 시  
최대 600만 상당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 증정

\* 구독 또는 일시불로만 구입 가능한 최대 품목 개수와 혜택은 달라질 수 있음

\* 다품목 혜택은 행사 매장에 따라 대상 품목 및 최대 증정 포인트 기준이 상이함

\* 단, 기업 고객에게는 동일 장소에 동일 품목 10대 이상 구독 시 총 구독료의 5% 할인 혜택 증정  
(대상 품목: 냉장고/세탁기/건조기/에어컨/공기청정기/정수기)

Our  
New  
Life

\* 본 행사 및 구독 혜택은 온/오프라인 행사 채널의 대상 모델에 한해 적용되며, 경로별 적용 대상 및 혜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적용 조건, 지급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을 참조해주세요. \* 일부 AI 기능 없는 모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고객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법인에 한정됩니다. \* 구독 및 일시불 구매 취소 시 제공받은 혜택(사은품, 포인트 등)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본 혜택은 이후에도 동일/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삼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